

학술 논문 작성법과 투고 전략 가이드

에세이리뷰 영문교정 서비스

본 출판물의 모든 저작권은 영어교정/번역 전문업체 워드바이스에 있으며, 모든 페이지 내용의 소유권은 워드바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essayreview.co.kr 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7 Wordvice.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materials on these pages are copyrighted by Wordvic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se pages, either text or image may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personal use. Therefore, reproduction, modification, storage in a retrieval system or retransmission,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wise, for reasons other than personal use, is strictly prohibited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1

저널 투고

1.1	논문 투고 성공률을 높이는 3 가지 방법	2
1.2	투고 저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3 가지	4
1.3	저널 투고 시 고려해야 할 저널의 목적과 주제	6
1.4	논문 리뷰 유형 4 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리뷰 유형은 무엇일까?	8
1.5	왜 올바른 저작권(Authorship)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	12
1.6	논문의 저자 지정 시 유의해야 할 3 가지	14



2

논문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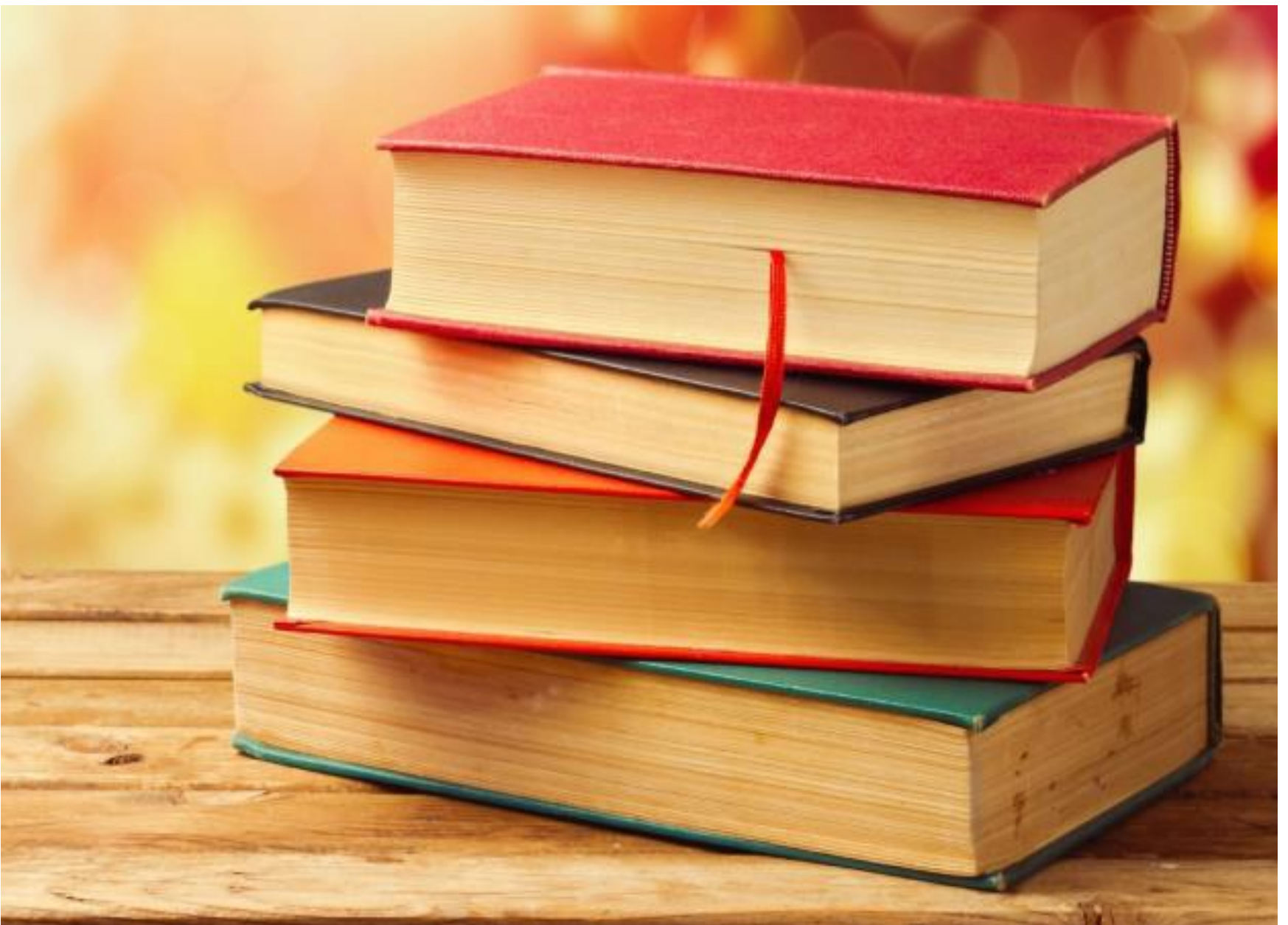
2.1	17 가지 논문 그림 제목(Figure Title)과 범례(Legend) 작성 요령	17
2.2	논문의 방법(Methods) 작성법	19
2.3	Results(결과)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23
2.4	논문 작성 팁: 효과적인 Discussion(고찰) 작성하기	25
2.5	설득력 있는 서론(Introduction) 작성법	28



3

유용한 논문 작성 자료

3.1	논문 작성 시 동사 시제 사용 Tips	32
3.2	효과적인 커버레터(cover letter) 작성법	35
3.3	효과적인 반박 서신(rebuttal letter) 작성법	40
3.4	학술 자료 검색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 모음	51
3.5	학술 논문 작성 시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 오류	54



1

저널 투고

“The measure of greatness in a scientific idea is the extent to which it stimulates thought and opens up new lines of research.”

– Paul A.M. Dirac



논문 투고 성공률을 높이는 3가지 방법



연구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 슬픈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구가 논문의 게재 여부와 어느 논문에 게재되었는지에 의해 평가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연구에 들인 노력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들의 성과가 논문 출판 개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연구원들은 논문 투고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논문의 게재 승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저널 에디터들이 게재를 승인하는 논문과 게재를 거절하는 논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ight reasons I

accepted your article” [1] 및 “Eight reasons I rejected your article” [2]에서, Elsevier Connect는 저널 에디터들이 논문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글에서는 논문 투고 성공률을 높이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저널 게재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널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 ◆ 각 출판사들은 논문투고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논문이 바로 게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투고 전에 논문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TIP: 논문의 포매팅이 각 투고 저널의 기준에 맞게 준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 각 저널은 특정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저널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인의 논문이 타겟 저널의 주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고하려는 저널을 결정한 후, 처음부터 해당 저널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작성하면 게재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TIP: 논문을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어느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지 고려합니다. 미리 투고할 논문을 결정하게 되면, 타겟 저널의 주제와 목적에 맞춰 작성하여 게재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저널 에디터들과 연구원들은 논문이 영어로 깔끔하게 잘 작성되어 있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 혹은 모국어이더라도, 논문을 여러 번 다시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 TIP: 영어와 문체의 이슈로 인해 자신의 논문이 게재가 거절되는 것은 너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고 전 영어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저널들이 영어교정을 저자들에게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성도를 높여라

- ◆ 논문 완성도의 이유로 게재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논문이 연구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혹시, 연구의 일부분만 논의하던지 혹은 논문의 핵심 내용을 생략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예전에 발표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 TIP: 논문이 자신 연구분야의 최신 정보에 근거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상세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게재가 거절되는 또 다른 이유는 결함이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제시된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연구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계획함으로써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연구 과제의 선택

- ◆ 논문 작성 시 연구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난제는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research question)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 ◆ Elsevier Connect의 조사에 따르면, 저널 에디터들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의사 결정권자에게 유용”한 논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 ◆ 이는 패러다임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보다는, 에디터들은 논문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 TIP: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연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중요한 질문과 관심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연구 과제이며 자신의 연구 결과와 논의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고할 저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논문이 거절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논문에 맞지 않는 저널에 투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8,000개 이상의 학술 저널 [3] 중에서, 자신의 논문에 적합한 저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원들은 자신의 연구 주제와 맞지 않는 저널에 투고하여 논문이 해당 저널과 주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논문이 아무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더라도, 투고저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논문 에디터들에 의해 자신의 연구가 게재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널 투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겟 독자층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 주제를 적절하게 구상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신의 연구에 적합한 저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중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을 분석하라

◆ 저널은 여러 곳에서 저널의 목적과 주제 범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널 웹사이트 (일반적으로 “About Us”에서) 와 논문 에디터들이 논문투고의 기준을 설명하는 투고 기준 설명란 (예: guide for autho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해당 저널의 소개와 저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해당 저널이 게재하거나 게재하지 않을 논문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해당 저널이 게재하지 않을 연구의 유형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 저널을 찾는 동안, 관심 있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을 열심히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해당 저널에 게재하기 위한 특정 요건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그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읽음으로써 저널의 에디터가 선호하는 연구와 논문의 유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TIP: 지난 몇 년 사이에 해당 저널에서 게재한 논문을 조사하여 해당 저널 에디터가 어떤 연구를 “novel”, “interesting” 및 “sufficient conceptual advancement”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찾아 세심히 살펴봅니다.

- ◆ 어느 저널이 자신의 논문과 유사한 연구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자신의 연구가 속한 분야의 저널을 선택함으로써 논문 게재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TIP: 저자의 논문과 관련성이 높은 저널에 논문이 게시될 경우, 더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 ◆ 저널의 Impact Factor(IF)를 고려해야 합니다. IF가 저널의 질을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학계에서 IF는 저널의 명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높은 IF를 보유한 저널에 투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저널에 투고하는데 걸릴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고려한 후 투고 가능확률과 혹은 투고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투고 과정을 조사하라

- ◆ 저널을 선택할 때는 그 저널의 투고 과정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저널의 피어리뷰 과정이 close인지 open access인지 조사한 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어리뷰 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저널을 선택합니다.

- ◆ 투고 과정의 기간 역시 논문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부 저널들은 리뷰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저널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저널의 투고 과정 기간이 자신의 연구 스케줄에 적합한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 ➡ TIP: 각 저널의 투고 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후 자신의 계획에 가장 적합한 저널을 결정해야 합니다.

- ◆ 저널의 출판 방식 역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자신의 논문이 대중에게 공개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그 저널에 대한 액세스를 가진 사람에게만 공개되길 원하는지 생각해봅니다.

- ◆ 투고할 저널의 목록을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Elsevier Journal Finder [4], Journal/Author Name Estimator (JANE) [5] 및 Springer Journal Suggester [6]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저널 찾기 툴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문의 주제와 맞는 저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연구가 투고 저널의 주제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저널의 목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구를 저널의 독자들에게 유용하고 관심을 끌만한 주제로 잘 포장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널들은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논문을 게재 승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과제가 독자가 관심 있어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연구 과제 및 해결 방향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논문을 작성합니다.

- ➡ TIP: 본인의 연구 결과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저널 투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널 투고 시 고려해야 할 저널의 목적과 주제



지난 글에서는 투고할 저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려사항 중 하나인 “저널의 목적과 주제”에 대해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란 무엇인가?

주제란 해당 저널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주제는 해당 저널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컫습니다.

저널의 목적(aim) 혹은 미션(mission)은 자신의 연구에 적합한 저널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명한 저널 중 하나인 Nature는 다음과 같이 저널의 주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Nature is a weekly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ing the finest peer-reviewed research in all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basis of its originality, importance, interdisciplinary

interest, timeliness, accessibility, elegance and surprising conclusions. Nature also provides rapid, authoritative, insightful and arresting news and interpretation of topical and coming trends affecting science, scientists, and the wider public. [7]

위의 내용에서, Nature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출판 빈도수 (매주)
- ◆ 타겟 독자 (전 세계)
- ◆ 리뷰 유형 (피어 리뷰)

- ◆ 투고 기준 (연구의 독창성, 중요성, 학제간 관심 유발 (interdisciplinary interest), 적시성, 정밀함, 놀라운 연구결과)
- ◆ 게재 논문 유형 (뉴스, 리서치 페이퍼 (과학, 공학,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 사설, 논평 (최신 연구 경향 분석)).

Nature는 저널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First, to serve scientists through prompt publication of significant advances in any branch of science, and to provide a forum for the reporting and discussion of news and issues concerning science. Second, to ensure that the results of science are rapidly disseminated to the public throughout the world, in a fashion that conveys their significance for knowledge, culture and daily life.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ature의 독자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대중도 포함합니다. 또한, Nature는 대중들의 지식 기반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해당 저널의 웹사이트의 “About Us”에서 저널의 목적과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널의 목적과 주제는 한 항목에 있을 수도 있고, 위의 Nature에서의 예시처럼 별도의 항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널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저널의 “Guide for Authors” 혹은 “For Authors” 항목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널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원들은 관심 있는 저널의 과월호들을 읽음으로써 해당 저널의 에디터들이 “novelty(새로움)”, “originality(독창성)”, “importance(중요성)” 등의 논문 선별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구 주제가 저널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널의 주제를 읽었다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주제가 저널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논문이 게재될 시 자신의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본인의 연구가 Nature의 주제와 부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Nature는 매주 발행되며 리뷰 기간이 다른 저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때문에, 이 저널에 투고하기로

한 이상 본인의 연구가 기존에 이미 발표된 사실에 관한 연구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리뷰 기간이 7달인 저널에 투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본인의 연구가 시간에 구애를 받아 빨리 게재되어야 하거나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출판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논문이 게재될 시 자신의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인의 연구가 해당 저널의 타겟 독자와 관련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본인의 연구가 한 대륙 내 소수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에, 국제 저널에 투고하는 것이 타당함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연구가 해당 저널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연구 결과가 여러 학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가?** 관심 있는 저널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선호할 경우, 한 분야에 국한된 프로젝트가 해당 저널의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일 것입니다.
4. **본인의 논문이 비전문가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너무 전문적인 용어로 쓰여져 있는가?** 비전문가 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널은 논문이 되도록 전문 용어가 적은 평이한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5. **본인의 연구가 해당 저널에 게재된 다른 논문의 연구와 비슷한가?** 유사성은 해당 저널에 투고할 때 좋은 신호일 수 있으나, 너무 유사할 경우 본인의 연구가 해당 저널에서 더 이상 “original” (독창적)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해당 저널이 본인의 논문을 게재할 것인가?** 본인의 연구가 임상에 관한 것인데, 투고를 고려하고 있는 저널이 어떠한 임상 연구도 게재하지 않았다면, 다른 저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설(editorial)을 작성하길 원하나 선정한 저널이 사설을 게재하지 않는다면, 투고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본인의 논문이 타겟 저널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커버레터와 초록에 언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저널이 정책 수립과 관련된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를 선호할 경우, 본인의 연구가 정책 수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커버레터와 초록에 언급합니다.

논문 리뷰 유형 4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리뷰 유형은 무엇일까?



올바른 저널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글에 이어, 이번에는 저널들이 논문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리뷰 유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고 저널을 결정할 때, 저널들의 목적과 주제뿐 아니라 해당 저널들의 리뷰 유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에디토리얼 리뷰(editorial review)와 피어리뷰(peer review)입니다. 피어리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정의와 각각의 유형이 투고 성공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에디토리얼 리뷰(editorial review)란?

에디토리얼 리뷰란 저널의 에디터들이 투고된 논문이 저널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리뷰 유형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논평 혹은 저자의 견해에 대한 글과 같이) 자신의 논문 내용이 연구를 기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저널의 에디터들만 논문 심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논문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저널의 에디터들이 저널 심사 과정의 첫 단계를 진행한 후,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논문을 추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피어리뷰어에게 투고 논문을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글에서 언급된 “논문이 거절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이 첫 번째 심사 단계를 통과할 경우, 해당 저널의 에디터들은 소수의 피어리뷰어들 (일반적으로 두 명 혹은 세 명)에게 연락을 한 후 심사를 위해 해당 논문을 전달합니다.

피어리뷰(peer review)란?

저널들은 여러 가지 피어리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널들은 한 유형의 피어리뷰를 고집하는 반면, Nature와 같은 저널들은 저자들이 싱글블라인드(single-blind)와 더블블라인드(double-blind) 리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최선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블라인드(single-blind) 리뷰란?

싱글블라인드 리뷰에서, 리뷰어들은 저자가 누군지 알지만, 리뷰어들은 익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리뷰 유형에서, 논문의 저자들은 논문 투고 서류에서 저자 식별 정보를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싱글블라인드 피어리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상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아래 “어느 리뷰가 나에게 적합할까?”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블블라인드(double-blind) 리뷰란?

더블블라인드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익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리뷰 유형에서, 저자들은 리뷰어의 이름을 모르고, 리뷰어들도 저자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더블블라인드 과정을 통해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의 논문에서 모든 저자 식별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투고 저널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익명화 과정(anonymization process)은 아래 단계를 포함합니다.

더블블라인드 리뷰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 논문 투고 파일에서 저자, 기관, 제휴 기관 이름 및 기타 식별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파일 속성을 확인하여 “저자”, “관리자”, “기관”, “최종 사용자”, “사용자 지정 필드”와 같은 속성에 저자의 이름,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식별 정보는 논문과 별도의 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드 카피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제목 페이지(title page)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 논문이 아닌 커버레터 혹은 감사의 말(acknowledgement)에 저자와 기여자(contributor) 정보를 포함합니다. 리뷰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의도적으로 생략한 정보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저자 및 기관 이름이 그림(figure)이나 범례(legend)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 ◆ 머리글과 바닥글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개인 정보가 있다면 이를 삭제합니다.
- ◆ 자기 자신을 인용할 때에는 3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We have previously…” 대신 “Jones and Thompson (2015) have…” 라고 작성합니다. 또는, “...has been shown before [Anonymous, 2015]”와 같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조 목록에, “Jones and Thompson, 2015” 혹은 “[Anonymous, 2015]”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투고 관련 서류에서 일관되게 3인칭 혹은 “Anonymous”를 사용합니다.

- ◆ 아직 게재 승인되지 않은 참고 문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픈 리뷰(open review)와 하이브리드 리뷰(hybrid review)란?

오픈 리뷰 과정에서는, 모두가 저자와 리뷰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 대한 코멘트는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저널들은 하이브리드 리뷰 과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Electronic Transac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저널이 하이브리드 리뷰 유형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리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하이브리드 유형에서는, 해당 저널의 에디터들이 먼저 논문이 적절한 주제를 갖고 있으며 논문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타당한지 결정하는 일반적인 에디토리얼 리뷰과정으로 시작합니다.
- ◆ 논문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그 논문은 모든 피어리뷰어들의 오픈 리뷰를 위해 토론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 ◆ 몇 달 동안 모든 사람들은 해당 논문에 관한 질문과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저널의 에디터들은 논문의 모든 내용이 서로 관련 있고 논문의 품질이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포럼(forum)을 관리합니다.
- ◆ 이 과정이 완료된 후, 저자들은 공개된 피드백에 근거하여 자신의 논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이 수정된 논문은 싱글블라인드 리뷰 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전문가에게 전달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심사자들은 (피어리뷰어들은) 논문 게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서, 광범위한 코멘트들이 이미 오픈 리뷰 과정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논문 게재 승인에 대한 더 이상의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리뷰가 나에게 적합할까?

지금까지 다양한 피어리뷰 시스템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유형의 리뷰가 자신의 논문에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 표에 각 리뷰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려해야 할 우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리뷰 시스템을 통해 제기된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

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와 자신의 명성이 피어(peer)들이 자신의 논문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 예입니다. 만약 자신이 인기 있는 연구 분야에 신규 진입한 연구원일 경우, 블라인드 리뷰 시스템이 오픈 리뷰 시스템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연구가 다른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연구의 가치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널의 리뷰어들은 더블블라인드 리뷰 유형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오픈 유형의 리뷰가 자신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대중들에 의해 평가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논문 심사의 객관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피어리뷰 유형, 장점 및 단점

리뷰유형	장점	단점
싱글블라인드 리뷰	◆ 리뷰어들은 심사하는 논문에 대해 압력이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연구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 투고된 논문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적 편견: 리뷰어가 저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논문을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성별 혹은 지역에 대한 편견과 같은 다른 차별요소가 논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리뷰어들은 개발 도상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대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블블라인드 리뷰	◆ 지역이나 성별 및 저자의 배경에 따른 차별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저자와 리뷰어 둘 다 개인의 공격 혹은 압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저자의 배경을 아는 것이 실제로 심사하는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더블블라인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리뷰어들은 연구 주제, 문체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저자의 신원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리뷰	◆ 투명성(Transparency)을 갖추으로써 조작의 위험성과 편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리뷰어들은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거나 논문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리뷰	◆ 투명성을 갖추으로써 조작의 위험성과 편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리뷰어들은 장기간에 걸쳐 논문에 대한 광범위한 코멘트를 제공하고 저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저자들은 자신의 논문이 오픈 시스템에 공개된 날을 자신의 논문의 우선 출판일(publication priority)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연구에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혹은 연구 방법이 타당한지를 논문 투고 전에 신중하게 결정한 후 논문 투고를 하기 때문에 게재 거절률이 낮은 편입니다.	◆ 오픈 리뷰 중에 저자들은 까다로운 질문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투고되는 논문의 완성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올바른 저자권(Authorship)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



저널의 에디터들이 논문 게재 승인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게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널의 주제와 피어리뷰 과정과 이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저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 중 하나는 “저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처음에는 명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저자권을 주장하는 것은 저자로 지정된 사람이 해당 논문의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세계에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자 이름의 순서 또한 누가 그 연구를 수행했는가 등과 같은 사항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저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저자권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권(Authorship)이란?

일반적으로, 저자란 글을 쓰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학술 연구의 세계에서 저자는 그 이상을 뜻합니다. 많은 저널들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 의한 저자권의 정의[8]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자권을 얻기 위해 연구원은 논문 투고에 있어서 다음의 네 과정 모두에 참여해야 합니다.

- ◆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함
- ◆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함
- ◆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함
- ◆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를 함

큰 조직에 의해 작성된 논문은 참여 기관뿐만 아니라 위에 나열된 4가지 저자권 기준을 만족하는 멤버의 이름도 나열해야 합니다.

기여자(contributor)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어떤 사람이 저자로 임명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ICMJE는 저자권 대신 감사의 말(Acknowledgment)에 그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자권과 감사의 말 간의 차이는 논문에 소개된 연구에 대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과정의 일부에만 참여한 사람들은 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이들의 기여가 중요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재정적인 후원자 혹은 랩 테크니션(lab technician)), 이들은 “저자”라고 정의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연구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여자들이 연구에 기여한 바를 나열함으로써 이들이 저자권을 갖지 못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MJE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9].

- ◆ “participating investigator” (참여 연구원)
- ◆ “served as scientific advisor” (고문 역임)
- ◆ “provided study patients” (연구 환자 제공)
- ◆ “participated in the writing or technical editing of the manuscript” (논문 작성 혹은 편집에 관여함)

왜 저자권이 중요할까?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자권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해당 연구에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을 지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중들과 연구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계는 운영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구를 수행하고 특정 데이터를 해석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데이터 혹은 논문에 기재된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학술 협업 및 지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올바른 저자권을 배정하는 것은 연구원들과 학계 간 서로의 믿음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저자권에 있어서 신뢰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고된 논문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중들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는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의 지식에 도전하고 이의 타당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한 연구를 평가하는데

그 연구를 수행한 사람과 소통할 수 없을 경우, 그 연구는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저자권은 팀 구성원들 사이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그룹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지만, 그들 중 일부만 저자로 명시되었습니다. 나머지 기여자들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이러한 분노는 중요한 연구 결과의 은폐 혹은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에 참여한 당사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저자권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몇 년간 수행해온 연구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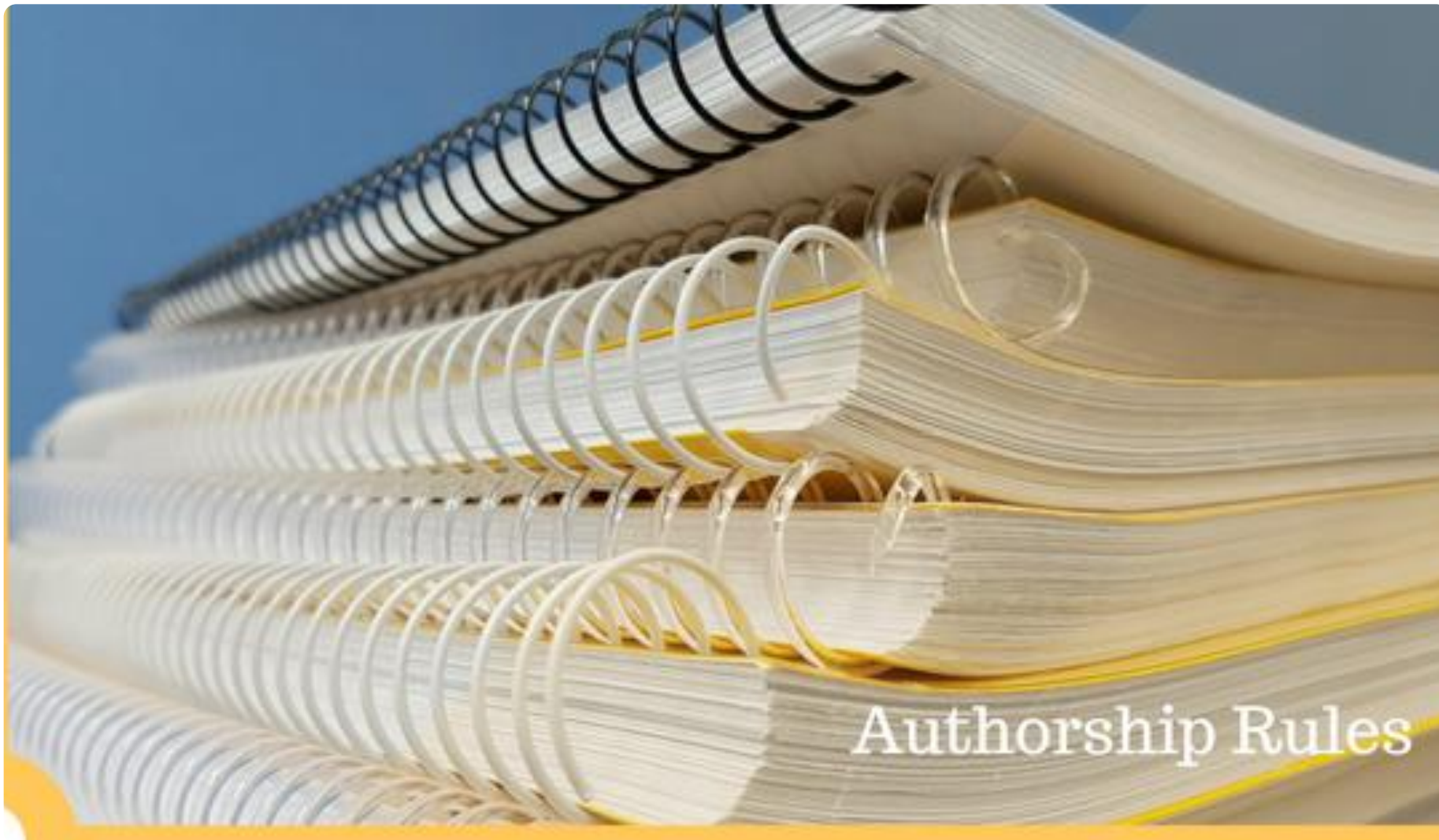
투고하는 저널의 에디터들은 저자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에디터의 관점에서 논문의 가치는 논문에 대한 신뢰성에 있습니다. 저널은 게재하는 논문이 철저하게 심사되었으며 게재된 논문의 연구가 타당한 출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디터들이 자신 있게 이를 검증할 수 없다면, 에디터들이 저자권에 문제가 있는 논문을 승인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논문이 제출된 후에 기여도에 대한 의견 충돌은 해당 저자의 논문 또는 향후 제출할 논문들의 게재 승인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 TIP: 저명한 저널에 투고하였지만 저자권에 있어서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저널 에디터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 전에 공동 저자 간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글에서 부적절한 저자권 지정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투고 전 저자권 문제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의 저자 지정 시 유의해야 할 3가지



이전 글에서,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8]“저자권(authorship)”을 정의하고 왜 저자권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는 저자권을 더 넓게 정의합니다. COPE는 “저자권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지만, 최소한 저자들은 연구의 특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9] ICMJE의 4개의 기준에 따른 정의 혹은 COPE에 따른 정의 간에, 저자권을 정확히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저널들은 Guide for Authors에 저자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자권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논문을 투고할 때 저널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저자 지정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이번 글에서 저자 지정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기여”의 의미는?

ICMJE 기준에 따르면, 저자는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ICMJE의 정의에 따른 저자권의 의미는 “논문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한 기여자를 저자로 명명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또는 창조적인 측면에서 연구에 참여한 것이 단순히 실험에 참여한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연구의 주제를 결정한 한 대학원생은 랩 테크니션(lab technician), 재정적 후원자 혹은 지도교수보다 저자권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기관이 저자인 경우는 어떨까요? 그 연구 자체는 그 개인이 속한 큰 그룹에 의해 규제될 것입니다. 그 기관 내 한 연구원이 연구 과정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였을지라도, 해당 기관 내 연구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그 연구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

어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관 내 누가 저자권을 갖는 것이 적합할까요? 한 그룹 내 일부 연구원들만 저자로 나열되어 있다면, 저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의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ICMJE는 해당 연구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들을 논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ICMJE는 “저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들은 저자권을 보유할 권리가 있고 저자로 리스트 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기관 전체가 저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 책임이 있는 특정 인물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 및 논문 초안 작성 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독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저널은 모든 그룹 멤버 및 그들의 구체적인 공헌 사항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연구의 복잡성(complexity) 증가 및 학제간 프로젝트(interdisciplinary project)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에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한 논문은 [11] 2,080명의 저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자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많은 저널들에게 부담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저자들을 너무 많이 나열하는 것은 저자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아무도 누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관해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해당 그룹의 모든 멤버를 나열하거나 각 저자가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저널들은 각 논문에 대한 보증자(guarantor)를 지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자는 전체적인 연구의 신빙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대중과 연구 그룹 간의 주요 연락 담당자(principal liaison)의 역할을 합니다.

저자로 간주되면 안 되는 자는?

저자를 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누가 저자로 간주되면 안 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저자로 간주되면 안 되는 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 ◆ 첫 번째 범주는 “명예 저자(honorary author)”입니다. 명예 저자들은 연구와 투고 과정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지만 연구를 수행한 해당 기관에서 고위직 (예를 들어, 학과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저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 저자들은 ICMJE의 “저자”의 첫 번째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자로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문화적인 이유 혹은 연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 ◆ 일부 연구원들은 “게스트 저자(guest author)”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그들의 논문 게재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저자로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저자권은 더블블라인드 피어리뷰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는 리뷰어들이 저자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마지막으로, 저자의 세 번째 범주는 “기프트 저자(gift author)”입니다. 기프트 저자들은 그들의 논문 출판 수를 높일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아닌 개인을 어떻게 명명해야 할까?

저자가 아닌 자를 명명하기 위해 “감사의 말(Acknowledgment)”에 ICMJE의 4개의 기준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혹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저널들은 감사의 말을 논문에 포함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저널은 랩 테크니션 및 논문 보조 작가들의 이름이 감사의 말에 나열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의 말은 나열될 수 있는 저자의 수를 제한하는 저널에게 꼭 알맞은 란입니다.

감사의 말에 나열된 모든 이름들에 관하여는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서 개인의 구체적인 기여도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임상 연구자”, “과학 고문으로 역임”, “자료 수집” 혹은 “연구 환자 제공”) 또한 함께 포함합니다. 감사의 말에 포함된 사람들은 공개양식(disclosure form)에 서명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대해 공개해야 합니다.

###

이번 글에서 에세이리뷰는 “저자”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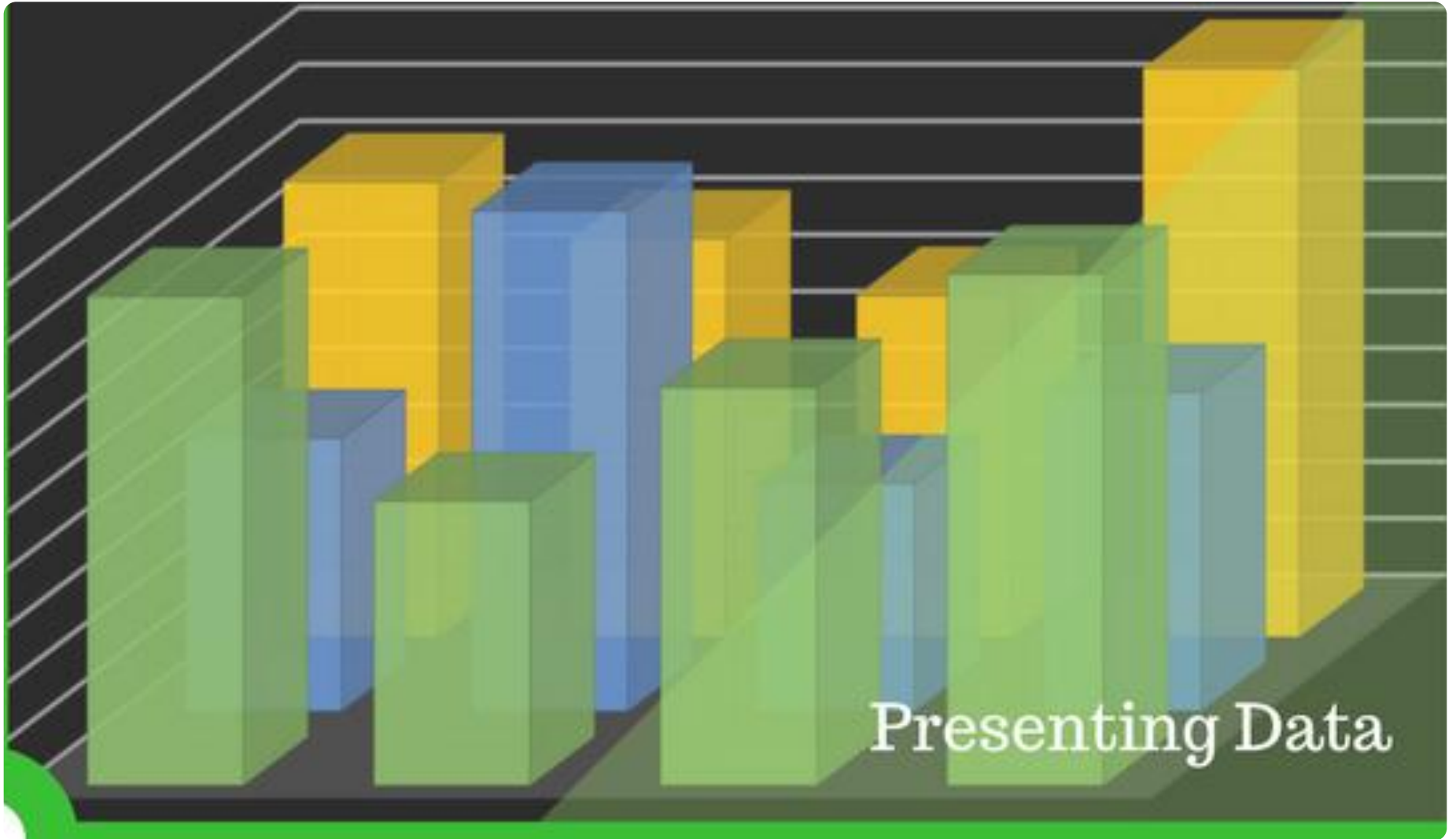
2

논문 작성

“The time will come when diligent re-
search over long periods will bring to
light things which now lie hidden.”
– Seneca, Natural Questions



17가지 논문 그림 제목(Figure Title)과 범례(Legend) 작성 요령



저널을 선택하여 그 안에 실린 논문 중 하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지 않고, 그 논문 안에 있는 그림(Figure) 중 하나를 확인한 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그림에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림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의 결론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으셨나요? 그럴 수 있다면 그 그림은 논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림은 논문의 가독성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논문의 데이터와 결론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논문에 포함된 그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림과 표(Table)가 단지 논문을 서포트하는 보충 자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림과 표 그 자체가 논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자는 본문을 읽지 않고, 그림과 그림의

제목 및 범례(Legend)를 보고도 논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읽기 전에 논문 안에 있는 그림과 표만 훑어보고 나머지 부분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논문의 그림 및 범례가 독립적으로도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에세이리뷰는 저널 투고를 위한 효과적인 범례 작성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팁과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추후에 쉽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작성 요령을 다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범례의 기본 구조; 제목, 재료 및 방법, 결과, 정의. 그림을 만들 때 다음 각 요소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효과적인 그림 제목(Figure Title)과 범례(Legend) 작성을 위한 17가지 팁

논문 그림의 범례를 작성할 때, 다음 요령과 타겟 저널의 가이드라인을 잘 파악하면 논문의 전달력도 향상시키고 게재 성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범례	Tip
기본 구조(Overall)	◆ 약 100~300단어 정도로 범례의 길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구절도 허용됩니다. ◆ 자신의 논문 본문에서 사용했던 약어, 용어 그리고 단위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방법과 결과 부분의 용어와 일치). ◆ 논문의 그림과 캡션이 투고하는 저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Title)	◆ 각 그림의 제목이 그림의 모든 패널들을 적절하게 포괄하는 제목인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제목이 모든 패널들을 포괄하지 못할 경우, 그림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행한 분석의 방법과 유형을 서술적 언어(descriptive language)로 사용합니다 (예: “Structural comparison of peptide-activated XY receptors”). ◆ 연구의 결론 혹은 주요 결과를 강조하고 싶으면 선언적 언어로(declarative language) 작성합니다 (예: “Compound ABC accelerates insulin production”). ◆ 강력한 동사와 함께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해당 그림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합니다. 해설은 실험에 적용된 처리 및 조건 혹은 사용된 모델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독자가 방법(Methods) 섹션에서 따로 추가적인 설명을 찾을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저널이 사용된 재료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저자가 범례에 포함하거나 배제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완료된 실험에 관해 논의할 때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과(Results)	◆ 한 문장으로 결론을 요약해야 합니다. ◆ 선언적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범례의 본문에서 그 결과를 재언급해야 하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표본 크기, p-값과 반복 검증의 횟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의(Definitions)	◆ (범례가 아닌) 그림에서, 모든 기호, 약어, 색상, 선, 척도, 에러 바 등을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림에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자신의 조직에서만 사용되는 명명 규칙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에, 외부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이거나 표준화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논문의 방법(Methods) 작성법



연구원들은 새로운 발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논문에 게재합니다. 이전의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널의 에디터들이 게재할 논문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논문의 방법론(methodology)입니다. 논문은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구 결과를 얻었는지와 해당 결론에 도달하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독자들이 해당 연구의 실험을 재현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Methods 섹션을 포함합니다.

결국, Methods 섹션은 명확해야 합니다. Methods 섹션은 실제 실행된 연구 절차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즉,

독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이를 해내었고, 왜 이를 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Methods(방법)가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Methods의 초안을 가장 먼저 작성하

기도 합니다. (1) 연구 과정에서 이뤄진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논문에 기재된 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2) 공동 저자와 저널 리뷰어에게 받은 피드백을 논문에 반영해야 할 경우 제일 마지막으로 Methods 섹션이 마무리 수정됩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Methods는

연구 대상과 변수를 선택한 이유, 이를 처리하거나 관찰한 방법,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과 얻은 정보를 분석한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육하원칙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근거하여 Methods를 작성하는 것이 더 명확한 Methods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구 과정을 전부 작성할 필요

는 없지만, 다른 연구원들이 여러분의 실험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 과정 및 방법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Methods의 형식은?

각 저널은 Methods 섹션의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표한 저널의 “Guide for Authors”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ethods 섹션은 다음 4가지 정보를 포함합니다.

1. 연구 디자인 - Study design: 자신의 연구 목적을 어떻게 소개할지, 연구과제에 대한 결론과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신이 설계한 연구 디자인(study design)이 무작위 오차(random error)와 계통적 오차(systematic error)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연구 대상 - Test subjects (선정 기준 및 방법): 자신이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 대해 독자들이 가질 수도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데이터 수집 - Data collection (기준 및 방법): 독자들이 자신의 실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편중(bias)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모든 변수를 통제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4. 데이터 분석 - Data analysis: 데이터 분석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데이터에서 도출한 결론에 대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의구심을 풀어줘야 합니다.

➡ **TIP: 부제(subheading)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제는 독자가 다양한 실험 단계 및 다른 실험 절차와 연구 대상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실험 방법은 순차적으로 혹은 실험 방법 유형에 따라 구성됩니다. 하지만, Methods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다른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면, 해당 방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Methods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일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에세이리뷰가 위에 제시된 일반적인 4가지 사항에 근거하여 아래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통해 Methods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ethods 섹션 작성 시 고려할 요소

세부항목	고려하거나 다루어야 할 요소
연구 디자인 (일반적으로 도입 문단에 포함됨)	◆ 연구 주제에 대해 현재 알려진 정보 ◆ 연구 유형 (기술적, 분석적, 비교, 개입, 관찰 연구 등) ◆ 변수와 해당 변수와 관련된 실험 대상 ◆ 데이터 수집 빈도 및 시기 ◆ 예측 모델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통제 방법 ◆ 실험 실행 가능성 이슈에 의한 연구 디자인 변경 필요 여부. 해당 시, 변경이 필요한 부분
연구 대상 (선택 기준 및 방법)	◆ 윤리적 고려 사항 (모든 동물 혹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 프로토콜에 대한 윤리 위원회의 승인, 임상 실험 대상의 사전 동의 등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함) ◆ 연구 배경 (시간, 장소 등) ◆ 살아있는 대상 (사람 및 동물): 인구학 및 임상학적 조건, 성별, 체중, 종 (種), 연령, 특별 사항, 생활 조건 등 ◆ 실험 시작 전 연구 대상에게 가해진 모든 준비 절차 ◆ 샘플링 방법 (타겟 집단, 표본 추출 방법, 사용된 실험 기구, 층화 (stratification), 군집화 (clustering) 혹은 가중치 (weighting) 포함) ◆ 연구 대상 모집 방법 및 이의 효용성 (실험 참여를 거절한 대상의 프로필을 포함해야 되는 경우도 있음) ◆ 비교 연구의 경우: 그룹 할당 및 무선회 (randomization) 절차 ◆ 종단적 연구 (longitudinal studies)를 위한 후속 절차

세부항목	고려하거나 다뤄야 할 요소
데이터 수집 (기준 및 방법)	◆ 측정 변수 (주요 예측 변수와 그 변수에 해당하는 모든 결과 포함) ◆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 방법과 기구 (계측기 제조업체와 모델, 검정(calibration) 절차 및 다른 연구원들이 해당 실험 결과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 포함) ◆ 편중 통제 (예: blinding procedures)
자료 분석	◆ 기술 통계 (예: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등) ◆ 추정 방법 (신뢰 구간, 가설적 시험 방법 및 회귀 모델 또는 사용된 다른 모델링 방법을 포함) ◆ 혼재(confounding) 관찰 연구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 ◆ 중간 분석 방법 ◆ 샘플링 방법 및 가중치 단계에서의 수정 사항 ◆ 누락된 데이터 ◆ 표본 크기 ◆ 검정력(power) 측정 ◆ 사용한 소프트웨어

Methods 섹션을 작성할 때 다음 지향 및 지양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향 및 지양사항

- ◆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한 일에 대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결과와 실험 절차를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Methods 섹션에서만 실험 절차에 대해 기술 합니다.
- ◆ 장황한 연구 결과 설명과 배경 정보는 제외합니다 (이는 Discussion 섹션에 포함됩니다).
- ◆ 실험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생략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먼저 생략하고자 하는 정보를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정보가 논문에서 생략되고, 독자가 자신의 연구를 재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상상해봅니다. 다른 연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략하여서는 안됩니다.
- ◆ 정확한 측정 정보 (단위 포함)를 제공하고 모든 측정 오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 ◆ 이미 다른 논문에 게재된 방법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여선 안됩니다. 대신에, 참조문헌(reference)을 사용하여 해당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미 다른 논문에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기존 방법에 추가 혹은 변형 사항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합니다.

이 팁을 염두에 두면, 명확하고 효과적인 Methods 섹션을 작성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sults(결과)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이번에는 효과적인 Results 작성 방법에 대한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저널들은 Results와 Discussion 섹션을 따로 작성하길 요구하는 반면, 다른 저널들은 Results와 Discussion을 하나로 합쳐서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저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타겟 저널의 “Guide for Authors”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ults의 목적은?

논문의 Results는 연구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명백한 부분이지만 많은 연구원들이 이 부분을 작성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Results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이 논문 작성 시 흔히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Tip

1.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Results에서는 이미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논문 전체에서 **데이터와 수치가 일관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자가 여러분의 논문을 읽고, “잠깐만. 처음에……라고 작성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질문하는 상황은 없어야겠죠?
3. **논문의 그림과 표는 논문에 언급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독자들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림과 표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4. **논문의 모든 그림 및 이미지를 명확하고 적절하게 명명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17가지 효과적인 그림 제목(Figure Title)과 범례(Legend) 작성 팁에 대해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Result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

아래 표는 연구원들이 Results를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지양사항)에 대해 다루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지향사항)을 제시합니다.

지양사항	지향사항
모든 데이터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문에서 다루길 원하는 연구 주제와 가장 관련된 데이터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뒷받침하지 않는 정보 모두를 포함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이 연구 주제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철두철미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글로만 설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부 데이터는 표와 그림 같은 시각적인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와 그림이 자신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림, 표 및 범례에 포함된 데이터를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Results에 기술한 자신의 데이터는 그래프에 반영된 정보를 보완 설명해야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 변인(control), 통계학적 분석, 실제 유의 확률(p value) 및 주요한 관찰 결과와 같은 정보를 범례 및 caption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Results에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 데이터를 체계적이지 않게 논의하지 않습니다.	Methods 섹션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혹은 중요도 순으로 정보를 나열하세요. 각 문단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가능한 문장을 수동태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능동태와 명확한 동사를 사용하면 문장을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맥과 관련 없는 수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퍼센트와 기타 비교 수치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유의성과 가중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독자들은 연구 결과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단순한 자료의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남을까요? 아니면 퍼센트로 나열하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남을까요?

위의 표가 저널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10가지 팁을 고려한다면, 더욱 명확하고 간결한 Results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 작성 팁: 효과적인 Discussion(고찰) 작성하기



이전 글에서 저자가 고려해야 논문 작성법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Figures and Legends(그림과 범례), Methods(방법), Results(결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논문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Discussion(고찰) 섹션 작성법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iscussion의 목적은?

간단히 말하자면,

Discussion은 서론(Introduction)에서 제시한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논문의 서론에서 저자는 독자가 왜 자신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Results 섹션에서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그래프를 제시합니다. Results에서 아무리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지라

도, Discussion 섹션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결론을 제시한다면 자신의 연구는 결국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거의 모든 연구원들은 Discussion 부분을 여러 번 수정합니다. 결국, (저명한 저널 Nature의 제안에 따르면) Discussion은 1~2문단으로 독자들이 자신이 Introduction에서 제기한 이슈와 연구결과에 해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연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문단으로 작성하기에는 너무 버겁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Discussion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iscussion의 목적은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Introduction에서 제시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Discussion에서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독자가 왜 자신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 ◆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지식의 공백(knowledge gap)에 대해 설명합니다.
- ◆ Introduction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반복해서 서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과학적 지식이 가진 공백(knowledge gap)을 메우기 위해 왜 이 특정 연구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 그 공백을 메우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설명해야 합니다.
- ◆ 자신의 연구가 독자들의 지식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주제를 추후에도 연구하도록 다른 연구원들을 고무시켜야 합니다.

2.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 ◆ Introduction에서 제시한 연구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가 논문의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 ◆ 연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모든 연구 결과에 대해 고찰해야 합니다.
- ◆ 가장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Discussion을 작성해야 합니다.
- ◆ 자신의 연구 결과와 상충하는 결론이 도출된 경우에는 상기 결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 Results에서 포함한 것을 반복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연구 가설을 답변하면서 해당 연구결과를 논의해야 합니다. “[The first result] was this…”라고 작성하는 대신 “[The first result] suggests [conclusion]”라고 작성합니다.

3. 자신이 내린 결론이 기존 문헌의 결과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 자신의 연구 결과가 현재 알려진 내용과 예상 결과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고찰해야 합니다.
- ◆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주장의 강점을 설명하고 상반된 의견의 취약점을 강조하여 자신이 내린 결론을 독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 예상하지 못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결론이 현재 문헌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자신의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그 한계점이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입증하는 데 있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합니다.

- ◆ 자신이 내린 결론에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해야 합니다.
- ◆ 자신의 기존 연구에서 수행되었어야 할 연구를 후속 연구의 방향성으로서 제안하면 안됩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의 연구 디자인과 프로토콜에 대한 독자들의 의구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비판적이면서도 자신감 있는 논조를 유지합니다.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가 독자들의 지식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5. 후속 연구 단계를 제안해야 합니다.

- ◆ 자신이 공유한 지식을 기반으로 다른 연구원들이 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을 Discussion에 포함해야 합니다.
- ◆ 하지만 제안사항은 간결해야 합니다 (2개 이하).

Discussion 작성 방법은?

다음은 논문의 Discussion 작성 시 유용한 팁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기술적 요소(Technical writing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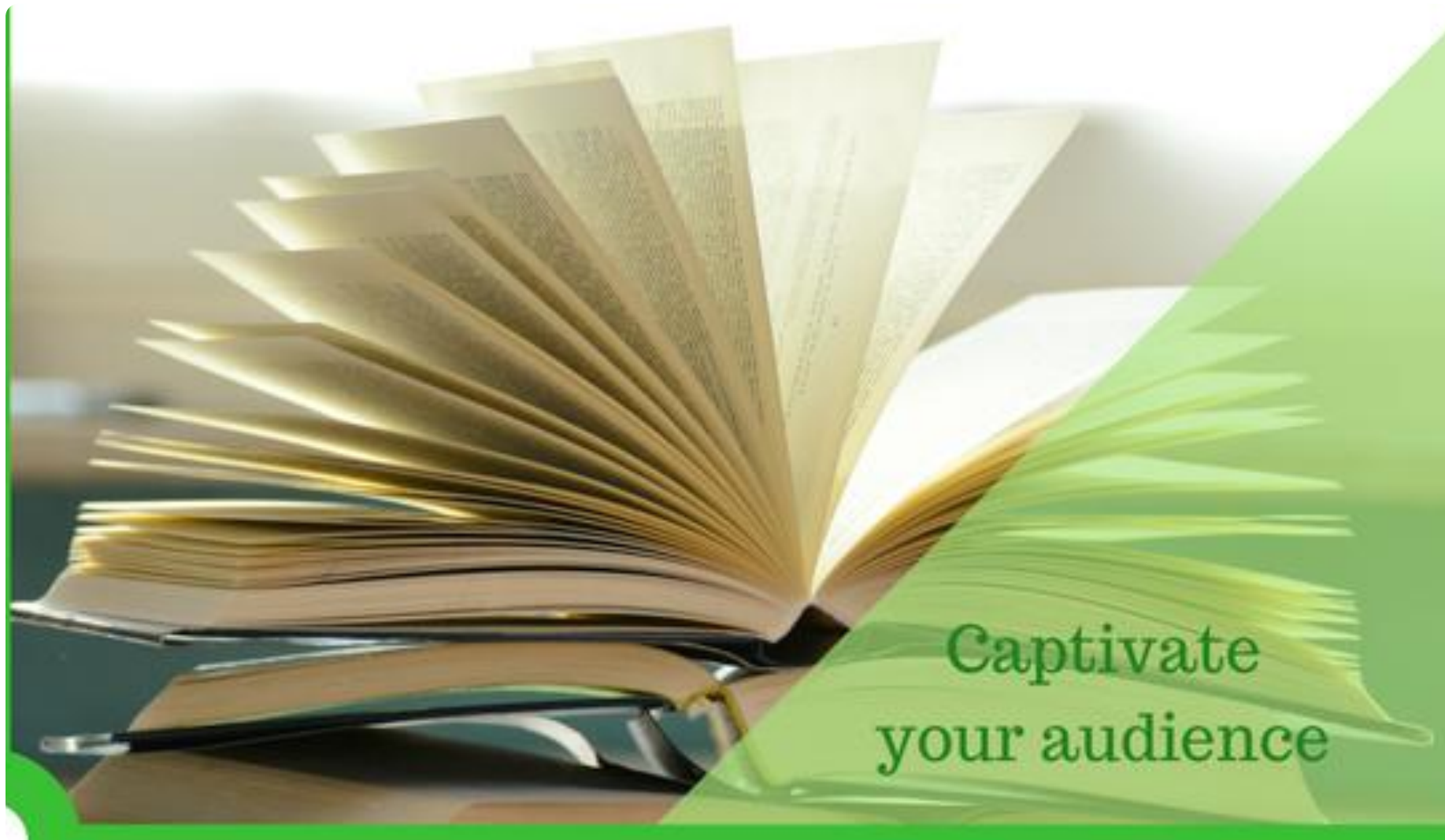
1. 수동태(passive voice) 사용 시 표현이 어색해지거나 문장이 길어질 수 있으니 (wordiness) 능동태(active voice)를 사용합니다.
2. Introduction과 동일하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3. 필요에 따라 일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중점을 두길 원하는 경우 이를 배제하도록 합니다.
4.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논조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구성(Organization)

1. Results, Methods 및 Discussion 섹션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 논문의 모든 섹션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널 논문 전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기술한다면, 독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더 빨리 이해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실험 방법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독자들이 Results의 내용에 기초하여 논문 내 주요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Discussion 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입니다. Discussion 섹션에는 2~3문단으로 구성하기에 중복되는 내용들과 문장의 wordiness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Discussion의 각각의 세부 항목에서는 (A) 결론, (B) 관련 결과 및 해당 결론과의 관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C) 관련 문헌 순서로 서술해야 합니다.
 - ◆ 연구 주제의 큰 그림을 설명하면서 Discussion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마무리합니다. Discussion의 첫 부분에서,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가진 공백(knowledge gap)을 메우기 위해 “왜 이 특정 연구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연구가 해당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로 자신의 논문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논문 작성 시, 에세이리뷰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인 Discussion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설득력 있는 서론(Introduction) 작성법



지금까지 저널 논문 작성 시리즈에서는 Figures, Methods, Results 및 Discussion 등 논문의 각 부분을 에세이리뷰가 권장하는 작성 순서대로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자들을 사로잡고 계속 읽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논문 출판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널 에디터들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논문이 아니라면 저자의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Introduction의 목적은?

Abstract(초록)과 figure(그림) 등과 같은 시각자료(visual aids) 다음에 독자가

처음으로 여러분의 논문과 실질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서론 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반에 흡입력 있는 서론을 작성하여 독자들을 여러분의 연구 세계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독자들은 서론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미 조언해드린 바와 같이, 서론에서는 해석의 규칙(rules of interpretation)을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결과 고찰(Discussion) 부분의 결론도 포함하여) 논문의 모든 부분에 걸쳐 그 규칙을 논리적으로 적용해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론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서론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tion을 두 단계에 걸쳐 작성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Introduction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다른 부분을 모두 작성하기 전에는 Introduction의 내용을 확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Introduction을 작성할 때 두 단계에 걸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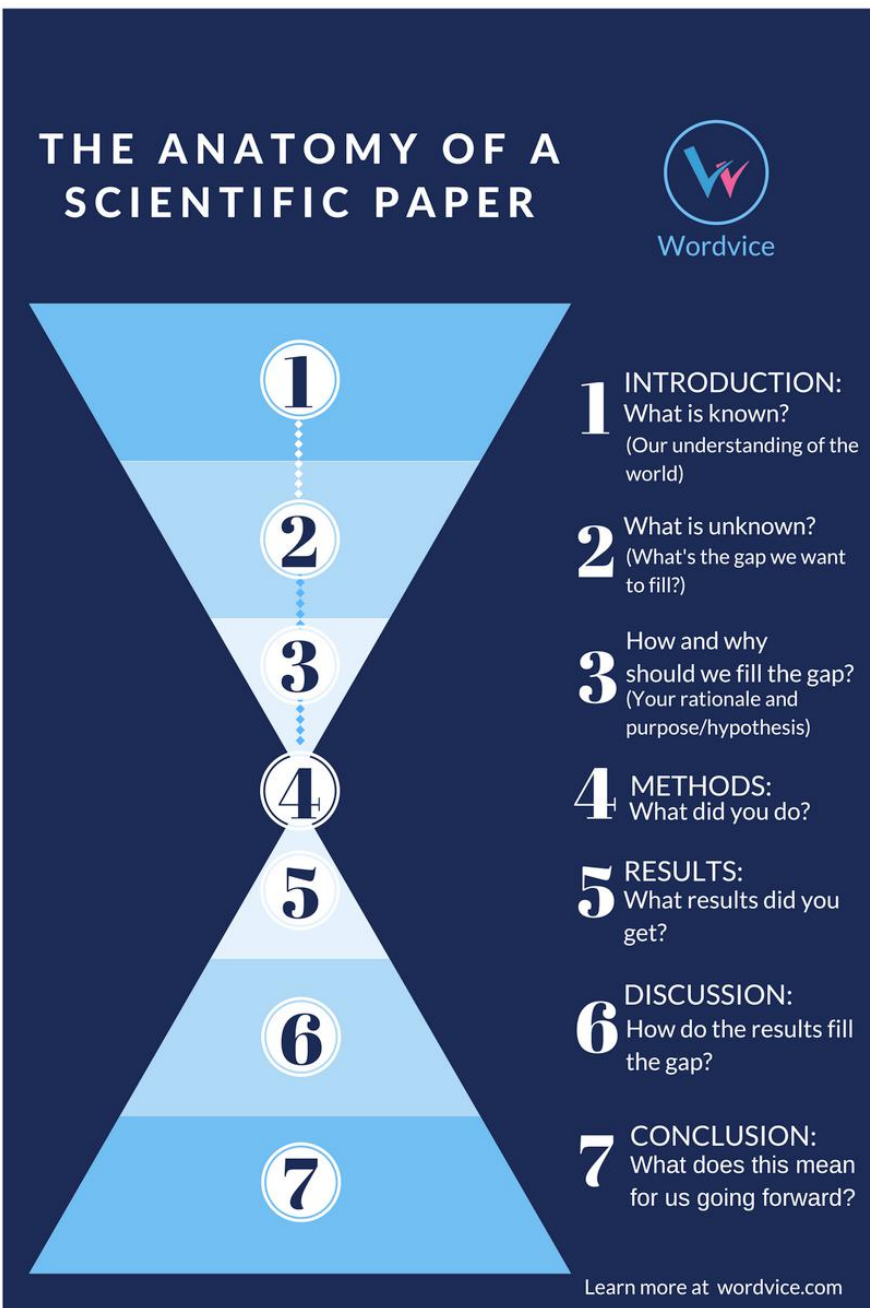
논문 작성을 시작할 때 Introduction에서 가설(hypothesis)을 먼저 작성합니다. 다음은 Results, Methods 및 Discussion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Introduction으로 돌아가 저희가 하단부에 “Introduction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 드리는 정보를 기반으로 마무리합니다.

Introduction에 들어갈 내용은?

논문은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이야기처럼 읽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라는 내용(Introduction)으로 시작해서 시간 순서대로 B라는 내용(Discussion/Conclusion)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Discussion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한 이전 글을 기억하시나요? Discussion 부분에서는 “우리의 과학적 지식 이 가진 공백(knowledge gap)을 메우기 위해 왜 하필 이 특정 연구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 그 공백을 메우는 일이 왜 중요한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ntroduction 부분에서는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Introduction에서는 먼저 지식의 공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논문이 아래의 도식에 나온 것 같은 모래시계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논문의 서론은 우리가 지금 가진 지식의 모래를 잡아 둡니다 (위쪽 유리관). 그리고 병목을 따라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는 지식의 새로운 기반을 쌓아가게 되죠 (아래쪽 유리관). 따라서 여러분의 논문은 모래시계의 위쪽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래의 여정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래 도식에 적힌 질문들에 단계별로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일부로서 서론은 처음의 세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론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가설에 도달할 때까지 그 내용은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상기 도식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배경지식

1. 일반적으로 Introduction에 자신의 연구의 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독자가 이미 알고 있을 법한 배경지식은 너무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할 경우 논지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논문의 제목에 있는 키워드(keyword)를 활용하고
 2. 자신의 연구 가설이나 목적을 제일 처음으로 작성함으로써 Introduction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와 함께 배경지식을 효과적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최신의 선행 문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합니다.** 인용할 문헌 중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해당 연구의 취약점을 설명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3. **인용한 참고문헌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계에서 표절이란 매우 심각한 위반행위이며,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다른 논문을 그대로 베끼거나 원문과 매우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문헌에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도록 하고 참고문헌 표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Introduction은 문헌 조사(literature review)와는 다릅니다.** 즉, 너무 많은 인용 문헌을 활용하여 배경지식에 대해 설명한다면 독자들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구 및 가설의 이해에 필요한 핵심적인 주요 문헌들만 인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구의 방향성

1. 먼저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해 아직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연구를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왜 독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 **기존 선행 문헌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자신의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선행 문헌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의 중요성

1. 먼저 **자신의 연구의 목적/가설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study X”라고 작성합니다.
2. 그 다음 자신의 **연구에서 새로 발견된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타겟 저널의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독자층의 관심사와 부합할 수 있는 자신의 연구결과의 유의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Introduction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연구 결과를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Introduction 작성 방법은?

학술논문에서 설득력 있는 서론(Introduction)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능동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 간결하게 서술하도록 합니다.
- ◆ 명사화(nominalization)를 피합니다. 명사화란 형용사나 동사 등의 구를 명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동사 형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명사화를 피하면 문장의 길이가 간결 해지고, 능동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문장의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 ◆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 3~4줄이 넘어가면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간결한 문장일수록 독자들이 더욱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장이 함축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문장 구조와 길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 마찬가지로, 세미콜론(semicolon)을 포함하는 긴 문장이나 쉼표로 길게 연결된 절(clause)을 삭제해야 합니다.
- ◆ 포괄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 ◆ 위에 “**Introduction에 들어갈 내용은?**”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다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논문을 전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BONUS TIP #1: 시선을 확 잡아끄는 내용으로 서론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 ➔ 흥미 있는 일화, 인용문, 또는 특이한 경험들로 시작하는 등 창의적인 논픽션(nonfiction)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BONUS TIP #2: “참신한”, “사상 최초의”, “기존의 판을 송두리째 바꾸는” 등과 같은 표현은 Introduction에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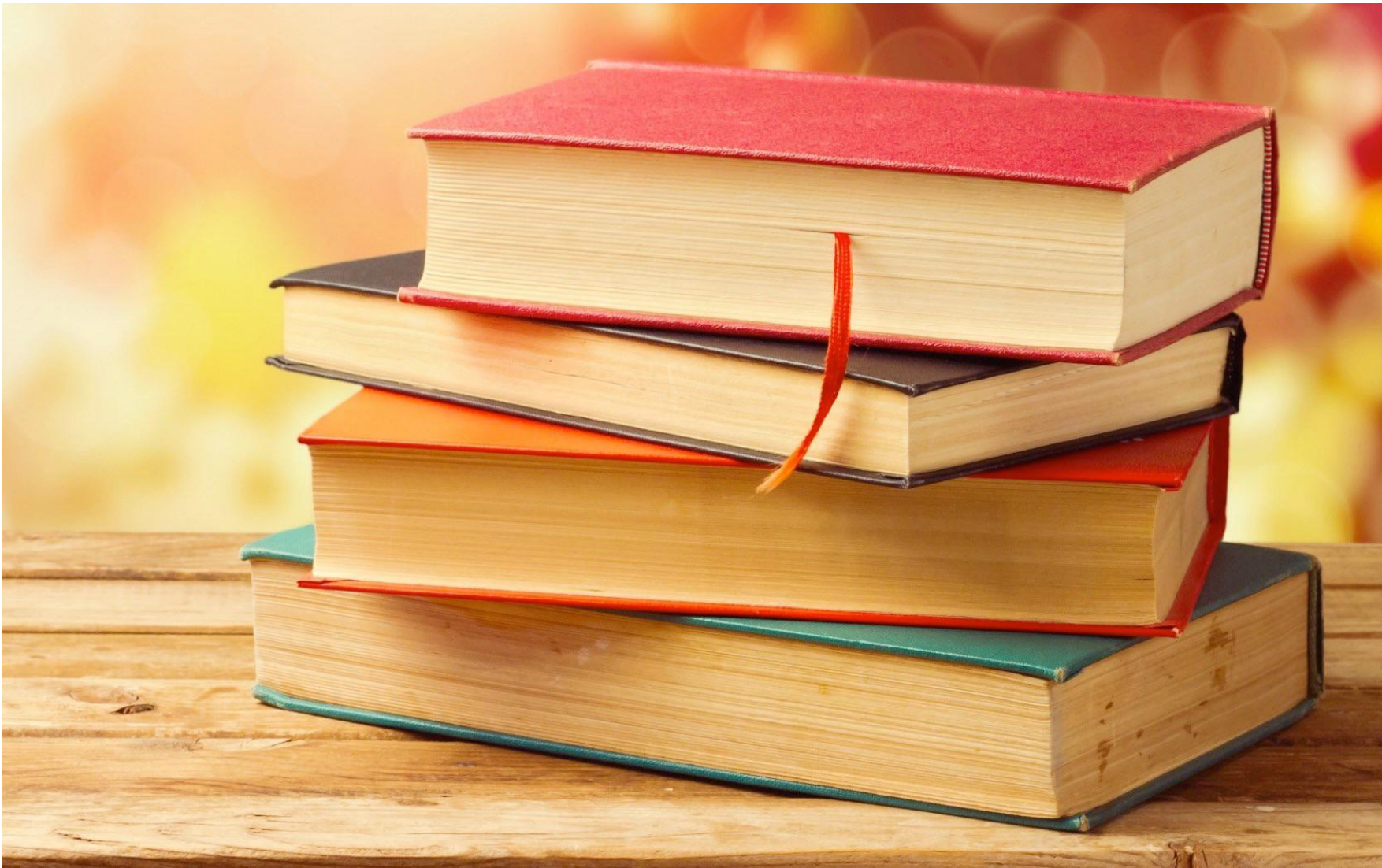
- ➔ 만약 본인의 연구가 현존하는 지식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 연구를 좀 더 진행한 후에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3

유용한 논문 작성 자료

“Lorem ipsum dolor sit amet, donec ornare vitae.”

– Leo Veneatis



논문 작성 시 동사 시제 사용 Tips



다음은 과학 논문의 각 섹션별로 동사 시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길 원하실 경우 최근 문체 경향을 고려한 Abstract 작성 관련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논문 작성: 동사 시제

1

Abstract

Past

연구 결과에 대해 서술할 경우

2

Introduction

Present

일반적인 연구 배경에 대해 서술할 경우

Present Perfect

선행 연구에 대해 서술할 경우

3

Methods

Past

과거 사항에 대해 서술할 경우
TIP: 일반적으로 수동태 사용

Present

도식/그림을 설명할 경우
예: Table 1 shows...

PAST

이미 완료된 현상에 대해 서술할 경우

예1: We **found** that...

예2: Protocol X **was followed**. [능동태]

PRESENT PERFECT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지속되거나 최근에 완료된 현상에 대해 서술할 경우

예: Many experiments **have focused** on...

PRESENT

일반적인 사실, 현재 연구의 유의의성 혹은 추후의 적용방향에 대해 서술할 경우

예1: Insulin and glucagon **regulate** blood glucose levels.

예2: Increased hormone production **indicates**...

4

Results

Past

실제 연구결과에 대해 서술할 경우

Present

도식/그림에 대해 설명할 경우
예: Table 1 shows...

5

Discussion

Present

연구결과의 유의의성에 대해 해석하고 서술할 경우

Past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할 경우

6

Conclusion

Past

이미 완료된 연구를 참조할 경우

Present

연구결과의 영향을 서술하고 추후 연구를 제안할 경우



essayreview.co.kr

에세이리뷰: Professional • Affordable • Fast
높은 품질의 영문 교정/번역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Abstract(초록)에서 사용해야 되는 시제: 과거 혹은 현재?

많은 분들께서 연구 논문의 Abstract(초록)에서 사용해야 하는 시제에 관해 궁금해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논문 초록 작성 시 몇 가지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초록에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 시제가 사용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시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초록에서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경향이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에서 사용되는 시제는 주로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적인 사실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서술합니다.
- ◆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의 경우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 ◆ 문장의 주제가 자신의 연구 또는 자신이 작성 중인 논문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 “Our study demonstrates …” 혹은 “Here, we show …”).
- ◆ 결론과 데이터 해석에 관해 서술할 경우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 ◆ 문장의 주제가 실제 결과 또는 관찰한 사항인 경우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 “Mice in Group B developed …”).

초록의 경우, 단순히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아닌 연구 결과 해석에 중점을 두길 원하는 경우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Nature에서 참조한 초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 ◆ 다음 문장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서술할 때 현재 시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The anaerobic formation and oxidation of methane involve…”
- ◆ 문장의 주제가 자신의 연구/논문에 대한 것일 때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 ◆ “Here [this article] we show that an anaerobic thermophilic enrichment culture …”
- ◆ 하지만 관찰한 사항의 경우 과거 시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Genes encoding 16S rRNA…were repeatedly retrieved from marine subsurface sediments…”

에세이리뷰가 제시한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초록의 대부분의 문장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기 초록이 구체적인 결과나 방법이 아닌 저자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이 시제 사용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과적인 커버레터(cover letter) 작성법

HOW TO WRITE THE BEST JOURNAL SUBMISSION COVER LETTER

저널 커버레터는 여러분의 논문이 심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저널 에디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공해드리는 가이드를 통해 (1) 효과적인 커버레터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 (2) 커버레터에 포함해야 할 내용, (3) 커버레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커버레터 작성법과 유용한 커버레터 문구를 포함한 커버레터 템플릿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커버레터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연구의 장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반면에, 효과적인 커버레터를 통해 자신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 저널 에디터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논문 게재를 승인할지 여부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저널 에디터들은 독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논문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논문의 출판이 수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논문의 제목과 내용만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논문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대부분의 저널 에디터들이 논문을 이해할 수 없

는 경우), 커버레터를 통해 자신의 연구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에디터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많은 저널 에디터들은 커버레터를 통해 **저자가 저널의 기본 지침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를 위한 저널 가이드가 논문 공개여부, 리뷰어 이름, 윤리적 관행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연구가 독창적이라고 하여도 저널에 게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신이 꼼꼼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레터의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저널 에디터들은 여러분 연구의 질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널 에디터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주면 안되겠죠!

커버레터에 포함해야 되는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타겟 저널의 “Guide for Authors”를 준수하세요!** 항상 에디터가 요구한 내용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구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게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래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내용의 목록을 준비하였습니다:

필수 내용:

- ◆ 에디터 성명 (알려진 경우)
- ◆ 투고하는 저널의 이름
- ◆ 논문 제목
- ◆ 논문 유형 (리뷰, 연구, 사례 연구 등)
- ◆ 투고 날짜
- ◆ 연구의 간략한 배경과 연구 주제
- ◆ 사용된 방법론의 간략한 개요
- ◆ 주요 연구 결과 및 중요성 (자신의 연구 결과가 해당 연구 분야 지식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 ◆ 저자 연락처 정보
- ◆ 자신의 논문이 이전에 게재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저널에 의해 현재 심사 중이 아니며 모든 저자들이 해당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승인하고 동의했다는 문구

기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 ◆ 해당 저널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와 유사한 논문들의 간략한 목록
- ◆ 자신 또는 공동 저자가 이전에 게재했거나 다른 저널에서 심사중인 관련 논문 목록. 해당 논문의 사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저널 에디터와 나눈 논의사항 언급 (예: 컨퍼런스에서 에디터와 연구 주제를 논의한 경우)
- ◆ 자신의 논문을 평가하는데 요구되는 전문 지식
- ◆ 원하는 리뷰어 성함 및 연락처 정보
- ◆ 필요한 경우, 제외하길 원하는 리뷰어 (이 내용은 온라인 제출 양식의 다른 부분에서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저널이 요구하는 공개여부/문구 (예: 윤리 기준 준수 여부, 이해 상충, 투고 조건 동의, 저작권 성명 등)

지양사항:

- ◆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두문자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됩니다.
- ◆ 연구 결과나 이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마세요.** “novel,” “first ever,” 및 “paradigm-changing”와 같은 단어를 피하세요 [14]. 이러한 유형의 문구는 자신의 편향성을 보여주며, 논문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지 저널 에디터들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 ◆ **이름을 나열하지 마세요.** 자신의 논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저자의 명성에 대해 논의하는 하는 것은 저

널 에디터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저널 에디터들은 논문의 내용이 저널의 기준에 적합한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점을 다루는 데에 주력하세요.

- ◆ **소설을 쓰지 마세요.** 자신의 연구를 적절히 설명하고 저널 에디터를 설득하기를 원한다면, 커버레터를 최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세요. 커버레터는 논문의 소개 및 간략한 개요입니다.
- ◆ **유머를 남발하지 마세요.** 저널 에디터의 관심을 끌기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유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커버레터 구성 방법은?

커버레터에서는 격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논문은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아래 e-mail형식의 서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커버 레터를 편지 양식(PDF 또는 우편으로 인쇄된 커버레터)으로 제출하고 연락처 정보가 레터의 상단 중앙에 위치하는 편지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락처 정보를 페이지의 왼쪽 위 모서리로 옮기세요.

저널 커버레터 샘플

[저널 에디터의 성과 이름], [대학원 학위(있는 경우)]

➡ TIP: 수신인 이름과 함께 학위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 John Smith, MD or Carolyn Daniels, MPH

[직함]

➡ 예: Editor-in-Chief, Managing Editor, Co-Editors-in-Chief

[저널명]

[저널 주소]

[투고 날짜: 월 일, 년]

Dear Dr./Mr./Ms. [에디터의 성]:

- ➡ TIP: 에디터의 성함을 모르는 경우 “Dear Managing Editor:” 또는 “Dear Editor-in-Chief:”와 같이 해당 저널에서 거론되는 직함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에디터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널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오래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경우 해당 저널에 연락하여 커버레터를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TIP: 격식적인 비즈니스 서신에서는 “Ms.”를 사용해야 하고 “Mrs.” 또는 “Miss”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TIP: 절대로 “Dear Sirs”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많은 저널 에디터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표현들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문단 1: 2-3 문장] I am writing to submit our manuscript entitled, ["제목"] for consideration as a [저널명][논문 유형]. [연구 디자인, 연구 주제, 주요 연구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한 1-2 문장.]

- ➡ 예: I am writing to submit our manuscript entitled, “X Marks the Spot” for consideration as an Awesome Science Journal research article. We examined the efficacy of using X factors as indicators for depression in Y subjects in Z regions through a 12-month prospective cohort study and can confirm that monitoring the levels of X is critical to identifying the onset of depression, regardless of geographical influences.
- ➡ TIP: 연구 결과와 결론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용한 문구들:
 - ➡ Our findings confirm that...
 - ➡ We have determined that...
 - ➡ Our results suggest...
 - ➡ We found that...
 - ➡ We illustrate...
 - ➡ Our findings reveal...
 - ➡ Our study clarifies...
 - ➡ Our research corroborates...
 - ➡ Our results establish...
 - ➡ Our work substantiates...

[문단 2: 2-5 문장] Given that [해당 연구로 이끈 배경], we believe that the findings presented in our paper will appeal to the [저널 독자층] who subscribe to [저널명]. Our findings will allow your readers to [identify the aspects of the journal's [Aim and Scope](#) that align with your paper]].

- ➡ TIP: 저널의 독자층과 독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를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많은 타겟 저널의 독자가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공 정책에 끼칠 영향에 관심 있다면, 자신의 연구 결론이 사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TIP: 왜 이 연구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배경을 포함하세요.
- ➡ 예: “Given the struggle policymakers have had to define proper criteria to diagnose the onset of depression in teenagers, we felt compelled to identify a cost-effective and universal methodology that local school administrators can use to screen students.”
- ➡ TIP: 자신의 연구가 선행 연구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를 서술하세요.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fter initially researching X, Y approached us to conduct a follow-up study that examined Z. While pursuing this project, we discovered [논문 투고를 통해 연구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먹게 만든 새로운 발견들.]“
- ➡ 예: Given the alarming increase in depression rates among teenagers and the lack of any uniform practical tests for screening students, we believe that the findings presented in our paper will appeal to education policymakers who subscribe to The Journal of Education. Although prior research has identified a few methods that could be used in depression screening, such as X and Y, the applications developed from those findings have been cost-prohibitive and difficult to administer on a national level. Thus, our findings will allow your readers to understand the factors involved in identifying the onset of depression in teenagers better and develop more cost-effective screening procedures that can be employed nationally. In so doing, we hope that our research advances the toolset needed to combat the concerns preoccupying the minds of many school administrators.

[문단 3: 유사한 연구] “This manuscript expands on the prior research conducted and published by [저자] in [저널명]” 또는 “This paper [examines a different aspect of]/ [takes a different approach to] the issues explored in the following papers also published by [저널명].”

1. 연구 1
2. 연구 2
3. 연구 3

- ➡ TIP: 타겟 저널이 게재한 유사한 연구가 있다면 이를 언급해야 되지만, 5개 이하로 나열하세요. 논문 하나만 언급하려는 경우, 앞의 문장을 “This paper [examines a different aspect of]/ [takes a different approach to] the issues explored by [저자] in [논문 제목], also published by [저널명] on [날짜]”로 대체하세요.

[문단 4: 종종 요구되는 추가 문구] Each of the authors confirms that this manuscript has not been previously published and is not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by any other journal. Additionally, all of the authors have approved the contents of this paper and have agreed to the [저널명]’s submission policies.

- ➡ TIP: 이전에 연구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해 기술하세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We have presented a subset of our findings [at 행사]/ [as 출판 유형] in [위치] in [년도].”
- ➡ 예: We have since expanded the scope of our research to contemplate international feasibility and acquired additional data that has helped us to develop a new understanding of geographical influences.

[문단 5: 저널 리뷰어 언급] 피어 리뷰 논문을 선택할 경우, 연구 결과와 해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배경을 갖춘 리뷰어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름, 기관, 이메일, 전문 분야]
- [이름, 기관, 이메일, 전문 분야]
- [이름, 기관, 이메일, 전문 분야]

위에 제시된 리뷰어들 중 누구도 금전상의 또는 그 외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서는 안됩니다.

- ➡ TIP: 저널은 여러분이 제안한 리뷰어들 중 적어도 하나의 리뷰어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3-5명의 원하는 리뷰어를 포함하세요.
- ➡ TIP: 타겟 저널이 사용하는 용어(“reviewer” 혹은 “refree”)를 사용하세요. 저널의 용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해당 저널을 제대로 조사하였고 투고할 준비가 되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6 문단: 자주 요구되는 추가 정보] Each named author h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conducting the underlying research and drafting this manuscript. Additionally,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named authors have no conflict of interest, financial or otherwise.

Sincerely,

[이름]

교신 저자

기관 내 직함

기관/소속 기관명

[기관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해당 국가/지역 코드 포함)]

[팩스: (해당 국가/지역 코드 포함)]

추가 연락처 [교신 저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관 내 직함

기관/소속 기관명

[기관 주소]

[이메일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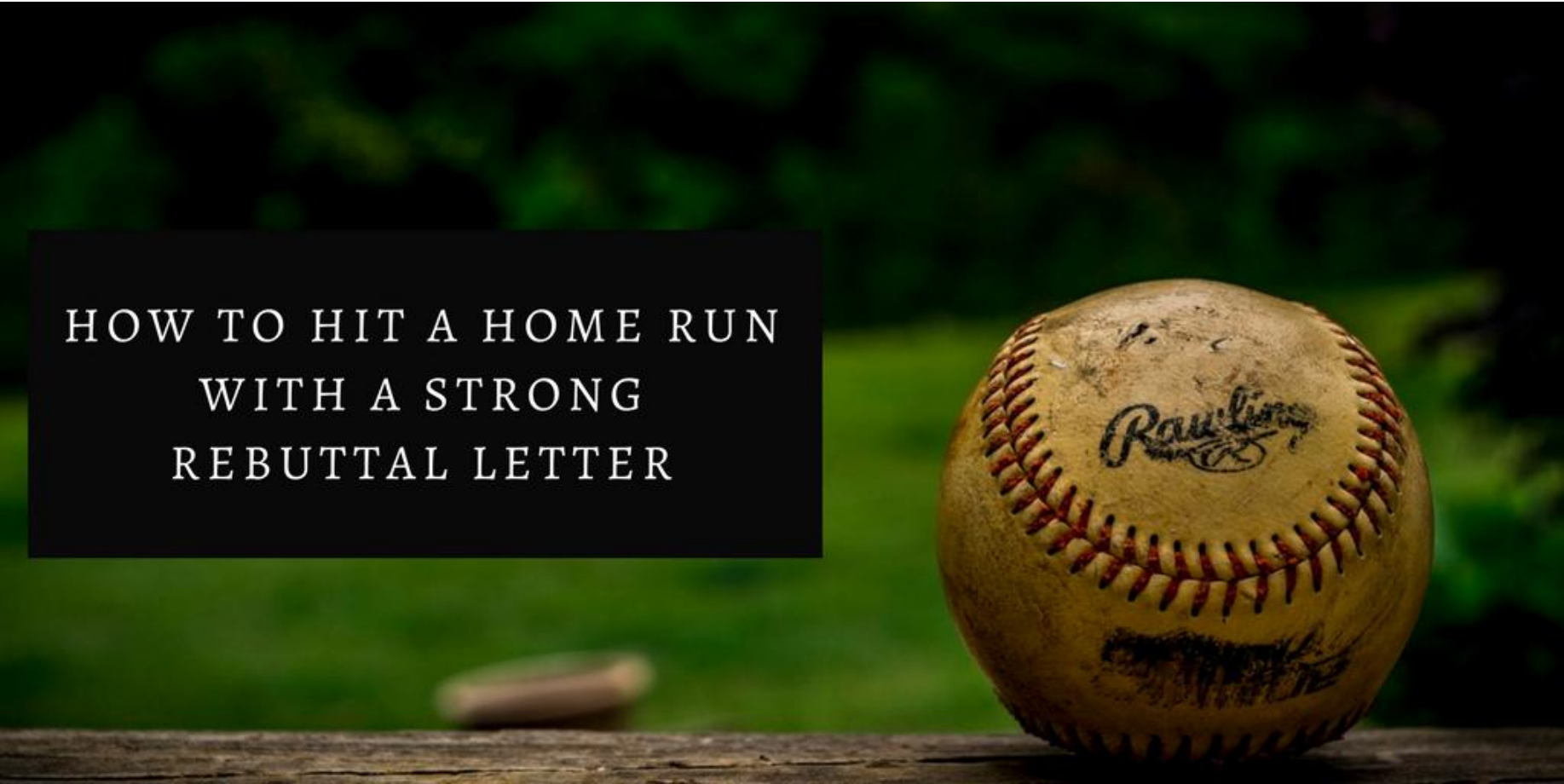
[전화: (해당 국가/지역 코드 포함)]

[팩스: (해당 국가/지역 코드 포함)]

커버레터 체크리스트

1. Arial 또는 Times New Roman, 크기 12 포인트로 폰트를 설정하세요.
2. 모든 텍스트를 single-space로 설정하세요.
3. 단락의 각 문단 사이 한 줄의 여백을 만드세요.
4. 문단을 들여 쓰지 마세요.
5. 모든 텍스트를 왼쪽 정렬하세요.
6. 철자와 문법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세요. 필요한 경우 에세이리뷰와 같은 [전문 영어 교정 서비스](#)를 사용하여 커버 레터를 명료하고 간결하게 만드세요.
7. 저널 에디터의 성함을 다시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저널에 연락하여 확인하세요.

효과적인 반박 서신(rebuttal letter) 작성법



글의 하이라이트

- ◆ 저널 투고 과정 및 저널 에디터, 리뷰어 및 저자가 내린 주요 결정의 개요
- ◆ 저널 에디터와 리뷰어의 질문과 의견에 대응하는 법
- ◆ 리젝션 레터(rejection letter) 대응법
- ◆ 반박(rebuttal) 및 어필 레터(appeal letter)에 포함할 유용한 문구
- ◆ 반박 레터(rebuttal letter) 서식
- ◆ 수정된 원고 준비 및 투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추가 자료 목록

저널 투고 과정 개요

Goldilocks을 만나세요. 곰 가족의 집에서 방황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서 Goldilocks에 대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침대에 누워보기도 하고 곰의 죽을 먹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 착오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널 투고 과정은 Goldilocks의 이야기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마 그녀가 야구 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홈런을 치기로 결심한 후, 본루로 걸어갑니다. 그런 다음 방망이로칩니다.

“스트라이크 원,” 심판이 외칩니다.

다시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공을 부드럽게칩니다.

“스트라이크 투!” 심판이 말합니다.

그녀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Goldilocks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방망이를 너무 세게 치든 너무 부드럽게 치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본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투고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홈런일 수도 아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결국 자신의 논문과 잘 맞는 저널을 발견하고 꿈꿔왔던 홈런을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게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 리

작성 레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즉, [논문 게재 승인 절차를 설명하고 리젝션 레터에 항의하거나 반박할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

먼저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논문을 저널에 투고하고 어떠한 변경 사항도 없이 처음부터 게재 승인을 받는 경우는 야구 방망이를 잡는 법도 모르는데 월드시리즈에서 홈런을 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 원고가 아무 수정사항 없이 게재 승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논문이 잘 쓰여져 있더라도, 일부 일류 저널들은 투고된 논문들 중 90% 가까이 게재 승인 하지 않습니다 [15]. 대부분 게재 승인이 나지 않은 논문들은 저널 리뷰어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널 에디터들이 논문이 저널의 현재 요구 사항에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저널 에디터들이 논문에 제시된 연구 및 방법론에 의해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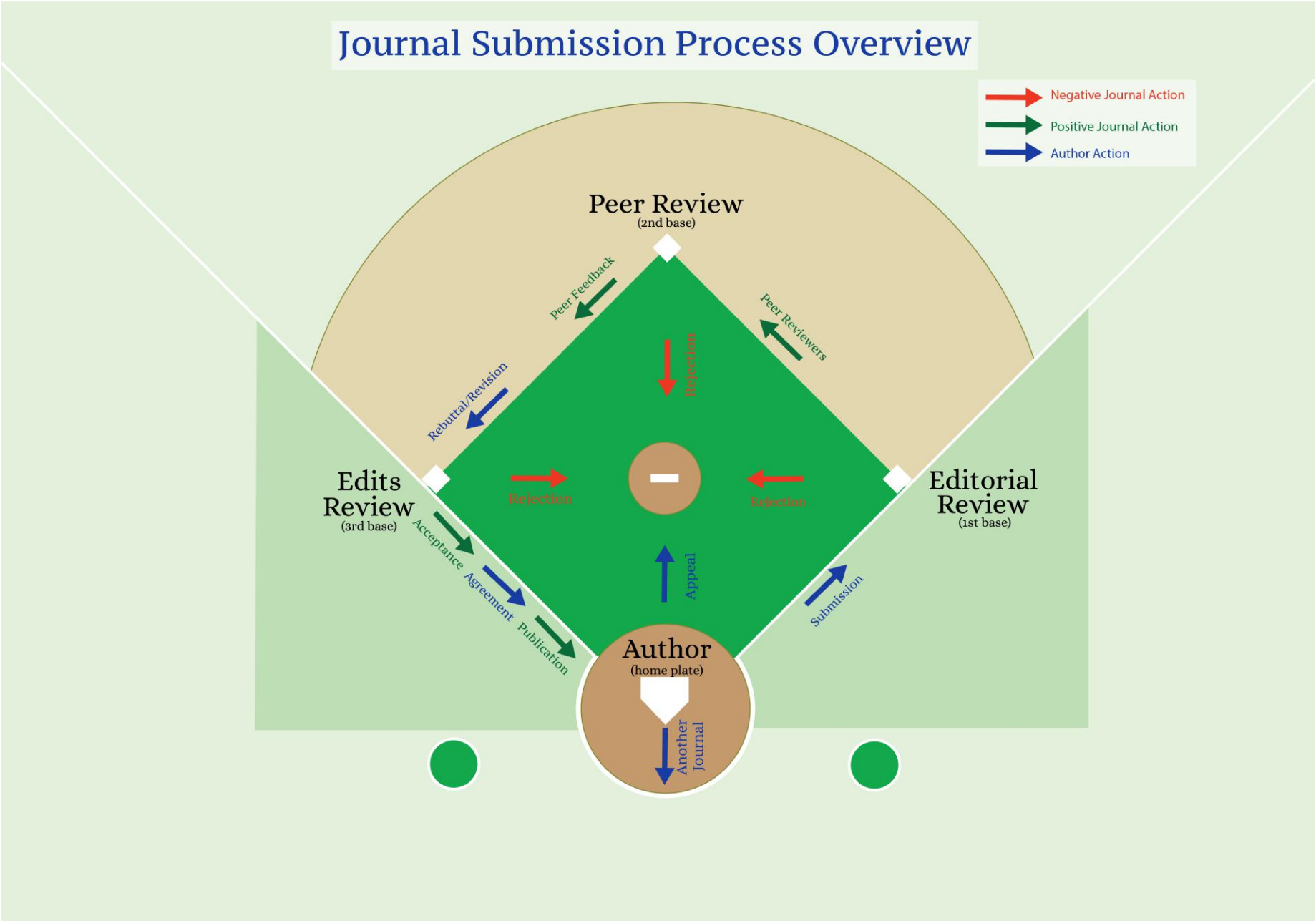
좋은 소식

투고 과정이 절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널 투고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저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실험 디자인을 제시하고, 타겟 저널의 독자의 관심을 끄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구성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커버레터를 작성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저널 커버레터를 작성함으로써 저널 에디터들이 피어 리뷰어들에게 여러분의 논문을 전달하여 심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디터의 심사를 거쳤다면, 첫 번째 라운드를 통과한 것입니다!](#) 논문 투고 성공은 피어 리뷰어들이 여러분의 논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이 피어 리뷰어들의 의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논문의 투고 과정은?

에디터와 피어 리뷰어 의견에 대응하는 법을 설명하기 전에 논문을 저널에 투고한 후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투고 리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결정과 조치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서 방금 위밍업을 하였고 이제 공을 칠 준비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본루에서 각 베이스로 어떻게 이동할지는 아래에서 논의할 내용에 달려있습니다.

1. **칠 준비가 됨.** 타겟 저널에 논문을 투고함과 동시에 리뷰 과정이 시작됩니다. 야구 방망이가 투구된 볼과 접촉하자마자, 여러분은 승리를 향해 돌진하게 되고 다음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2. **1루로 전진.** 논문을 받으면, 저널 에디터들이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에디터들이 검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연구 논문이 저널의 주제와 목적과 맞는가?
 - ◆ 논문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인가?
 - ◆ 해당 저널이 최근 유사한 논문을 게재하였는가(따라서 같은 유형의 다른 논문을 게재하고 싶지 않아하지는 않는가)?
 - ◆ 저널의 “Instruction to Authors”에 제공된 투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가?
 - ◆ 연구 방법론에 결함이 있지는 않은가?
 - ◆ 논문이 읽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주요 문법 및 문체 오류가 없는가)?

저널 에디터가 해당 논문이 저널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피어 리뷰를 거치지 않고 논문이 게재 거절될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 ◆ 다른 저널에 투고하기; 또는
 - ◆ 논문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하기. [불행히도,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논문을 완전히 수정한 경우에는 새로 투고를 해야 합니다.]
3. **2루로 돌진.** 저널 에디터가 에디터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논문에 만족하면, 그 논문을 관련 피어 리뷰어들에게 전달합니다. 선택된 피어 리뷰어들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며, 해당 연구의 장점을 조사합니다. 특히 논문의 작문 스타일이 연구 방법, 결과 및 분석의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들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방법론에 무시할 수 없는 결점이 있는가?
 - ◆ 연구가 불완전하지는 않는가?
 - ◆ 연구 결과가 결론을 뒷받침하는가?

리뷰어들이 해당 논문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특히 해당 연구가 불완전하거나 분석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 거절될 것입니다. 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 ◆ 다른 저널에 투고하기; 또는
- ◆ 논문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하기. [불행히도,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논문을 완전히 수정한 경우에는 새로 투고를 해야 합니다.]

리뷰어들이 해당 논문을 마음에 들어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기를 기대하며 피어 리뷰어 의견을 보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피어 리뷰어 의견 대응법” 참조).

4. **3루로 슬라이드.** 이 시점에서, 저널 에디터 팀은 피어 리뷰어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회신을 받았으며 변경 사항에 만족하며 해당 논문이 게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요구하는 변경 사항이 크지는 않습니다. 점수를 획득할 차나이며, 논문의 내용을 위조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없다면, 논문이 게재될 것입니다.
5. **홈런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 저널 에디터들은 여러분의 논문 게재를 승인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널 에디터들은 최종 수정 작업을 하였으며 여러분은 논문을 게재하기 전 남아있는 행정적인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에디터 또는 리뷰어 의견에 답변하는 법은?

완전한 게재 거절이 아닌 회신 레터(response letter)를 저널 에디터로부터 받으면, 설명과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의견과 질문은 저널 에디터와 리뷰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논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 1. 저널은 해당 논문에 관심이 있으며 저널 리뷰어들은 논문의 내용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이나 내용 추가를 원합니다. 이 유형의 레터는 2루타를 쳤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시점부터는 상당히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2. 여러분의 논문의 게재를 거절하지만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포함하는 상당한 수정이 이뤄진다면 논문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레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야구에 비유한다면 1루타를 쳤지만 2루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게임에서 아웃된 것은 아닙니다. 신속하게 1루로 돌진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실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루 2루와 관계 없이 저널 게재 여부는 저널 에디터의 편지에 명시된 질문과 의견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반박 레터(rebuttal letter)**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심하세요.

지향사항	지양사항
저널 에디터와 리뷰어가 논문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감사 드리세요. 마찬가지로, 공손하고 호의적인 논조를 유지하세요. 그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연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함을 기억하세요. 부적절한 이유로 여러분의 논문을 게재 거절하게 만들지 마세요.	에디터나 리뷰어를 모욕하지 마세요. 존경심을 표하세요. 에디터나 리뷰어가 실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래 유용한 문구 목록을 참고하세요.)
저널 에디터와 리뷰어가 묻는 모든 질문에 답하세요. 감사의 말이나 찬사를 포함하여 모든 의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사항을 처리하지 못하면 투고 과정이 길어지고 신속한 논문 게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질문이나 의견에 답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구체적인 답변이나 솔루션이 없을 지라도 답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혹은 기타 개인적인 제약으로 서술하여 충분히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이 여러분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러한 이유로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저널의 주제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주제를 다시 수정해서 말해야 하는 경우 그렇게 하세요.
리뷰어 의견의 전체 텍스트를 복사하고 원본 텍스트의 각 내용 아래에 관련 답변을(아래 서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포함하세요. 포매팅이 중요합니다. 글 머리 기호, 다른 글꼴, 굵게 또는 이탤릭체를 사용하여 답변을 리뷰어의 의견과 구별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게 에디터의 의견이나 질문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거나 수정하지 마세요. 에디터들의 질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논문 원본이 리뷰어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답변을 포함하는 섹션을 지정하세요.	리뷰어가 이미 논문에 언급되어 있는 점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이를 귀찮아함이 글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래 유용한 문구 목록을 참조하세요.)
수정한 논문에 새로운 시각 자료나 기타 보충 자료를 추가한 경우 해당 페이지와 줄 번호, 그림 번호 등을 참조하여 편지에 명확하게 이를 표시하세요.	정보를 마구잡이로 늘어놓지 않습니다. 반박 레터를 포매팅 함으로써 잘못된 의사 전달을 줄이고 리뷰어와 에디터가 요청한 정보를 빨리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젝션 레터(rejection letter) 대응법

슬프게도, 게재 거절 역시 논문 투고 경험의 일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널 에디터들은 때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논문을 게재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절된 논문에 대한 이의 제기(appeal)가 무시되고 새로운 논문이 심사된 후에만 그 거절된 논문이 고려됩니다.

저자로서, **이의 제기(appeal)가 논문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저널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 까지 몇 주 또는 그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은 피드백을 수용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새로운 원고를 다른 저널에 투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하세요.

지향사항	지양사항
저널 에디터와 리뷰어가 논문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감사 드리세요. 공손하고 호의적인 논조를 유지하세요. 그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연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함을 기억하세요. 부적절한 이유로 여러분의 논문을 게재 거절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널 에디터나 리뷰어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모욕하지 마세요. 적대적인 에디터들은 여러분을 돕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하고 외교적인 어조를 사용하세요! (유용한 구문 목록을 참고하세요). 마찬가지로 리젝션 레터(rejection letter)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휴식을 취하고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리젝션 레터를 다시 검토하세요.
게재 거절이 잘못된 실험 절차 때문이 아니라면, 저널 에디터들은 여러분의 논문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신의 연구가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 기반을 확장하고 다양한 독자에게 유용할 것임을 정성 들여서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게재 거절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널마다 각자의 출판 일정과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연구가 다른 저자가 게재한 연구와 중복되거나 해당 저널이 독자 의견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한 결점(예: 실험 디자인 또는 불완전한 분석)으로 인해 논문 게재가 거절된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설명하세요.	성공적으로 어필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논문을 다시 쓰고 이의 제기으로써 이를 다시 제출하지 마세요. 논문을 많이 수정하였다면 (중요한 새로운 데이터 포함), 새로 투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피어 리뷰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평가에 있어서 오류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블라인드 리뷰 과정에서, 자신의 리뷰어가 누구인지 짐작하지 마세요. 대신에, 리뷰어의 구체적인 의견과 이 코멘트가 어떻게 편향된 의견이나 자신의 연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명백하게 반영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를 분석하세요.
저널의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객관적으로 다루세요. 반박 레터처럼 리뷰어 의견의 전체 텍스트를 복사하고 원본 텍스트의 각 섹션 아래에 관련 응답을 포함시킵니다 (아래 서식 참조).	실제 자신의 연구의 실질적인 장점과 저널과 자신의 논문의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명성이나 기타 내용을 강조하여 판 길로 세지마세요.

반박 서신(rebuttal letter)에 포함할 유용한 문구

아래 논문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설명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문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명 서문

- ◆ Thank you for providing these insights.
- ◆ Thank you for your suggestion.
- ◆ That is an interesting query.
- ◆ This is an interesting perspective.
- ◆ We agree with you.
- ◆ We agree with your assessment.
- ◆ You have raised an important question.
- ◆ You have asked an interesting question.

에디터/리뷰어 의견과 동의함을 표현

- ◆ We agree with you and have incorporated this suggestion throughout our paper.
- ◆ We have reflected this comment by... (p. #, lines #-#).
- ◆ We have incorporated your comments by... (p. #, lines #-#).
- ◆ We agree that...
- ◆ We have now [X] (p. #, lines #-#) and [Y] (p. #, lines #-#). We think these changes now better [Z]. We hope that you agree.

에디터/리뷰어의 제안사항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

- ◆ You have raised an important point; however, we believe that [X] would be outside the scope of our paper because...
- ◆ This is a valid assessment of...; however, we believe that [X] would be more appropriate because...
- ◆ We agree that...; however, due to [X], we believe that...
- ◆ In our revisions, we have attempted to [X] (p. #, lines #-#); however, we have retained some of our arguments because...
- ◆ We acknowledge that [X] has certain limitations; however,...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였음을 표현

- ◆ We have clarified that... means... (p. #, lines #-#) throughout the paper.
- ◆ We have redrafted the [X] section (p. #, lines #-#) to establish a clearer focus.
- ◆ We have revised the text (p. #, lines #-#) to reflect...
- ◆ We removed [X] (from p. #, lines #-#) and hope that the deletion clarifies the points we attempted to make.
- ◆ We have replaced the term [X] throughout the paper with [Y] to use more precise terms.
- ◆ We have rewritten [X] (p. #, lines #-#) to be more in line with your comments. We hope that the edited section clarifies...
- ◆ We have elaborated on [X] (p. #, lines #-#) and expanded our consideration of [Y]. We hope these revisions provide a more [balanced][thorough] discussion.

추가 내용 또는 설명

- ◆ We have included a new Figure # (p. #) to further illustrate...
- ◆ We have added a new Table # (p. #), which outlines...
- ◆ We have supplemented the [X] section with explanations of [Y] (p. #, lines #-#).
- ◆ There are multiple reasons/approaches to..., including [our scenario]. We have included an acknowledgment regarding this point in the [X] section (p. #, lines #-#).
- ◆ We have not done... However, we believe that [doing X] (p. #, lines #-#) would address this issue because...
- ◆ We have not done...; however, our sense is that...

반복되는 회신 (회신 중 하나가 여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 Please see point # above. [예: "Please see point 2(a) above."]

반박 레터 샘플

[저널 에디터의 성과 이름], [대학원 학위 (있는 경우)]

- ➡ TIP: 수신인 이름과 함께 학위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예: John Smith, MD or Carolyn Daniels, MPH
- ➡ 예: Editor-in-Chief, Managing Editor, Co-Editors-in-Chief

[직함]

- ➡ 예: Editor-in-Chief, Managing Editor, Co-Editors-in-Chief

[저널 주소]

[투고 날짜: 월 일, 년]

Dear Dr./Mr./Ms. [에디터의 성]:

- ➡ TIP: 에디터의 성함을 모르는 경우 “Dear Managing Editor:” 또는 “Dear Editor-in-Chief:”와 같이 해당 저널에서 거론되는 직함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에디터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널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오래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경우 해당 저널에 연락하여 커버레터를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TIP: 격식적인 비즈니스 서신에서는 “Ms.”를 사용해야 하고 “Mrs.” 또는 “Miss”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TIP: 절대로 “Dear Sirs”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많은 저널 에디터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표현들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us to submit a revised draft of our manuscript entitled, “[제목]” to [저널명]. We also appreciate the time and effort you and each of the reviewers have dedicated to providing insightful feedback on ways to strengthen our paper. Thus,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we resubmit our article for further consideration. We have incorporated changes that reflect the detailed suggestions you have graciously provided. We also hope that our edits and the responses we provide below satisfactorily address all the issues and concerns you and the reviewers have noted.

To facilitate your review of our revisions, the following is a point-by-point response to the questions and comments delivered in your letter dated ____.

에디터 제안사항:

1. [에디터의 전체적인 코멘트]

- ◆ **RESPONSE:** [에디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의견을 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간략한 회신.]

2. [에디터의 첫 코멘트]

- ◆ **RESPONSE:** [코멘트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예: "You raise an important question.")[변경 사항 언급 또는 에디터의 의견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제공하였다는 회신.]

3. [에디터의 두 번째 코멘트]

- ◆ **RESPONSE:** [코멘트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예: "You make a fair assessment.")[변경 사항 언급 또는 에디터의 의견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제공하였다는 회신.]

리뷰어 1 코멘트:

1. [리뷰어1의 전체적인 코멘트]

- ◆ **RESPONSE:** [리뷰어가 자신의 논문을 검토하느라 사용한 시간과 에너지 및 그들의 코멘트에 대한 감사의 표현.]

2. [리뷰어 1의 첫 코멘트]

- ◆ **RESPONSE:** [코멘트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예: "Thank you for this suggestion.")] [변경 사항 언급 또는 에디터의 의견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제공하였다는 회신.]

3. [리뷰어1의 두 번째 코멘트]

- ◆ **RESPONSE:** [코멘트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예: "Thank you for this suggestion.")] [변경 사항 언급 또는 에디터의 의견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제공하였다는 회신.]

리뷰어 2 코멘트:

1. [리뷰어 2의 전체적인 코멘트]

- ◆ **RESPONSE:** [리뷰어가 자신의 논문을 검토하느라 사용한 시간과 에너지 및 그들의 코멘트에 대한 감사의 표현.]

2. [리뷰어 2의 첫 코멘트]

- ◆ **RESPONSE:** [코멘트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예: "Thank you for this suggestion.")] [변경 사항 언급 또는 에디터의 의견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제공하였다는 회신.]

3. [리뷰어 2의 두 번째 코멘트]

- ◆ **RESPONSE:** [코멘트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예: "Thank you for this suggestion.")] [변경 사항 언급 또는 에디터의 의견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제공하였다는 회신.]

끝 맺는 말: Again,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strengthen our manuscript with your valuable comments and queries. We have worked hard to incorporate your feedback and hope that these revisions persuade you to accept our submission.

Sincerely,

[이름]

교신 저자

기관 내 직함

[기관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해당 국가/지역 코드 포함)]

[팩스: (해당 국가/지역 코드 포함)]

추가 연락처 [교신 저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관 내 직함

기관/소속 기관명

[기관 주소]

[이메일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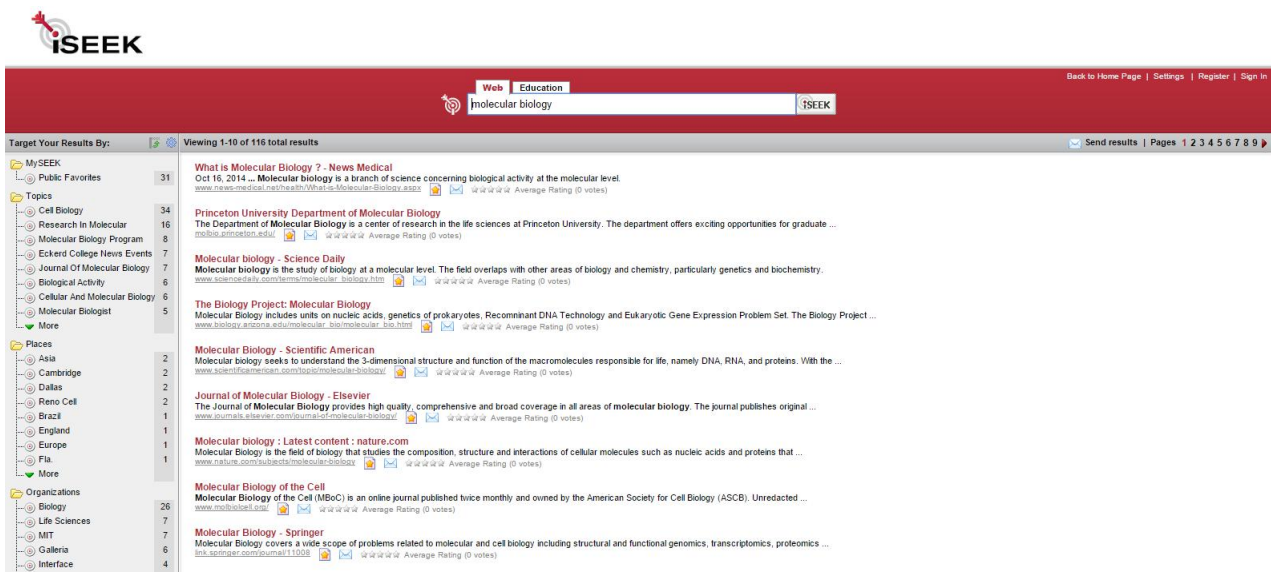
[전화: (해당 국가/지역 코드 포함)]

[팩스: (해당 국가/지역 코드 포함)]

학술 자료 검색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 모음

해외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간된 논문이나 관련 학술 자료를 참고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으시다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아래 해외 사이트들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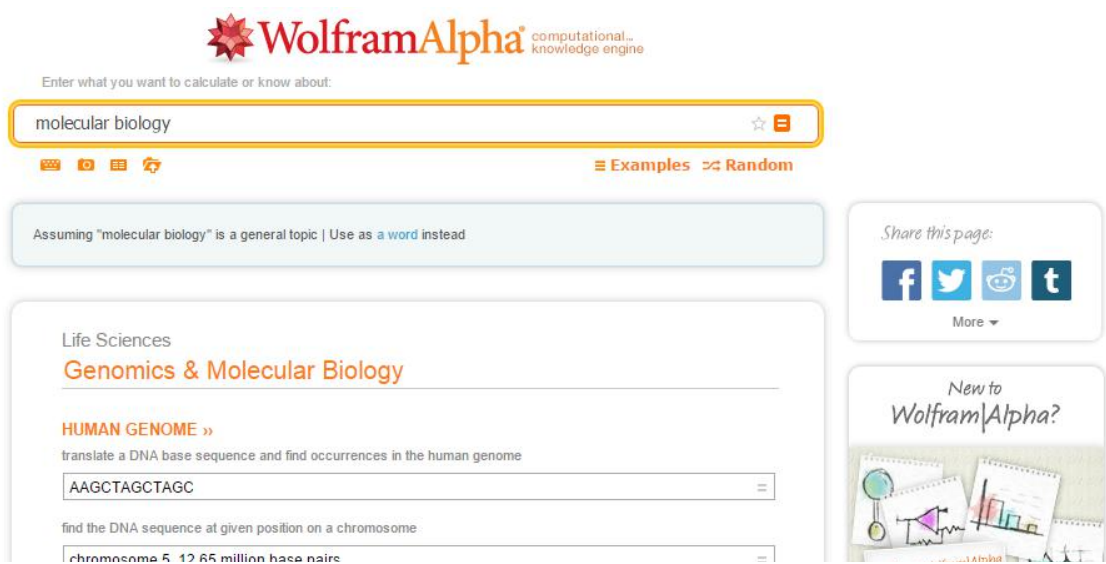
ISEEK: 교육, 학술용으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검색 엔진입니다. 학술지 에디터들이 검색 내용을 관리하기에 학술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키워드를 입력한 후 주제, 장소, 관련 기관, 출처, article 출판 날짜 등에 따라 2차 검색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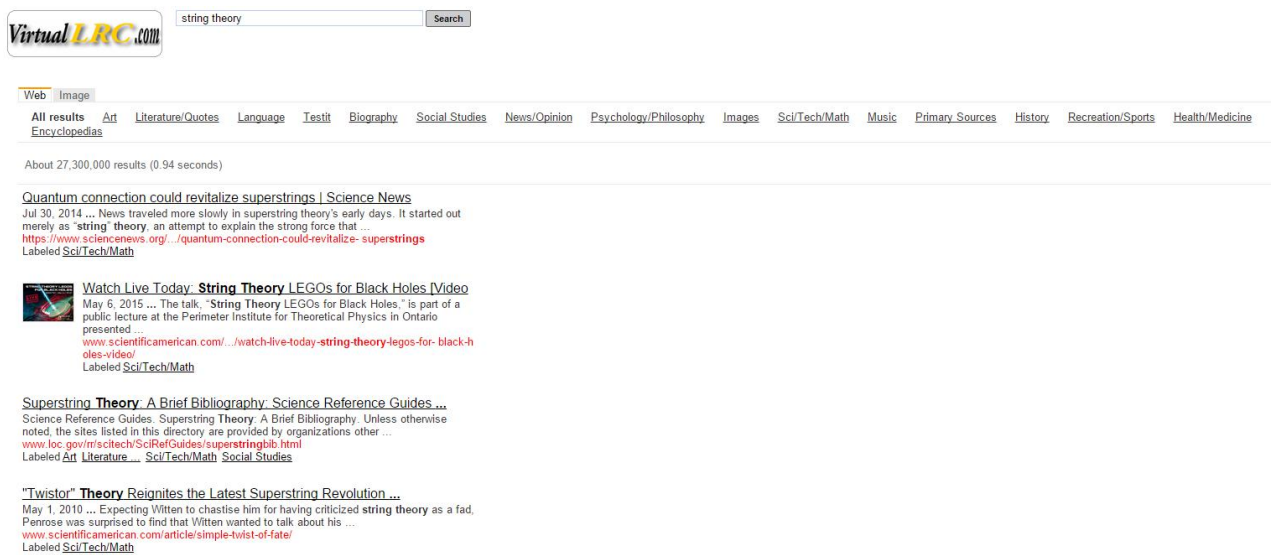
Google Correlate: 특정 학술 개념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검색어를 상관관계가 큰 순서대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논문 검색이나 작성 시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검색어를 다루기 때문에 학술 용어와 관계 없는 검색어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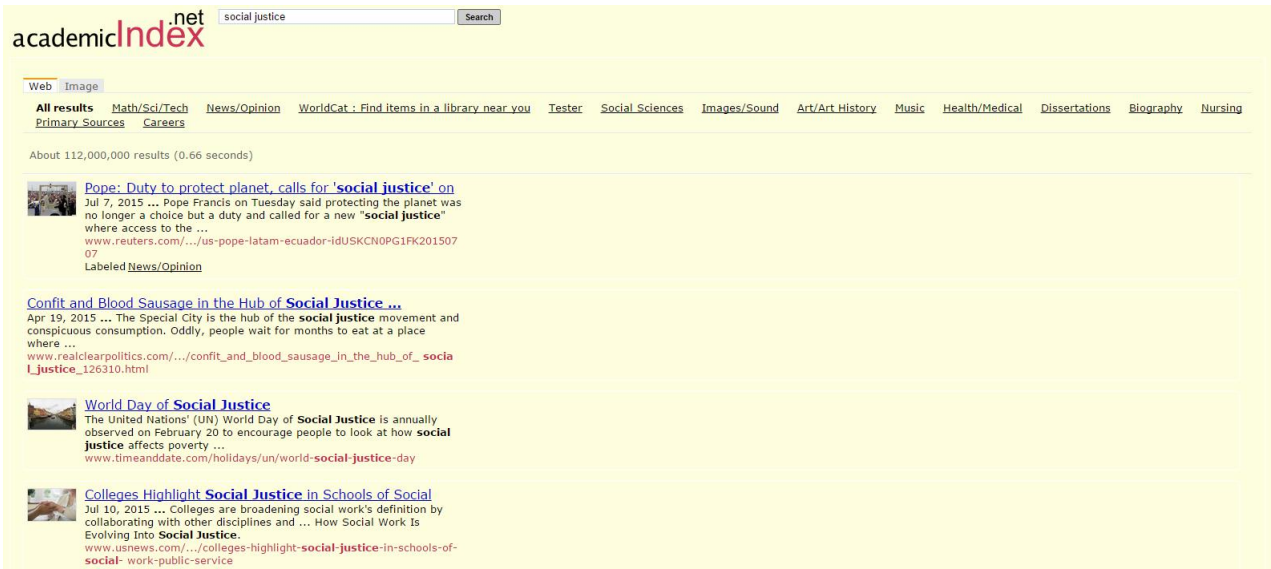
Wolfram|Alpha: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자가 필요로 할 만한 계산, 분석, 답변 등을 알아서 제공하는 매우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molecular biology”를 검색했을 뿐인데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단백질 염기서열 분석 등의 기능이 검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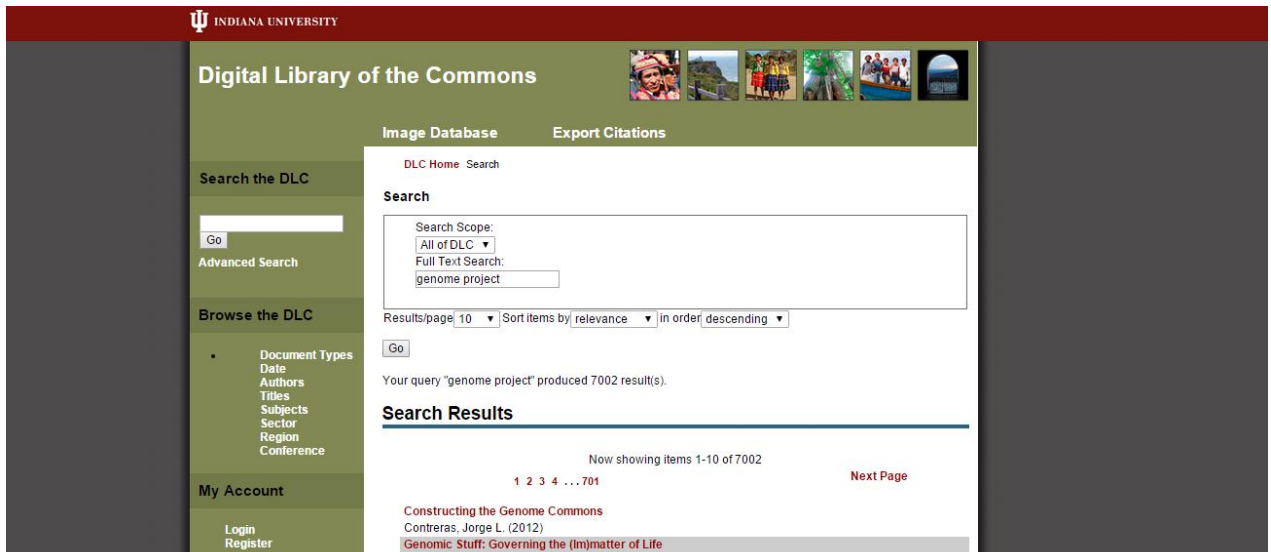
Virtual LRC: 구글 검색을 학술용 목적에 맞게 설정해놓은 사이트입니다. 교원과 도서관 관리자들이 검색 내용을 관리하기에 가장 유용한 학술 정보 웹사이트들로 범위를 좁혀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cademic Index: 마찬가지로 학술용 목적에 최적화된 검색 엔진입니다. 대학생/대학원생들을 주요 타겟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하네요.



Digital Library of the Commons Repository: 미국, 영국 뿐 아니라 기타 국가들의 논문을 검색하기에 좋은 서비스입니다. 기타 학술 자료를 제외하고 논문만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네요.



학술 논문 작성 시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 오류



먼저 퀴즈로 본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 1. 관사 사용: 다음 중 어느 문장이 올바른 문장일까요?
 - (1) I read a new book. The book was fascinating.
 - (2) I read the new book. The book was fascinating.
- 2. 지시사 사용: 다음 중 어느 문장이 올바른 문장일까요?
 - (1) I have two books left. Take this one. Thanks, but I want the another.
 - (2) I have two books left. Take this one. Thanks, but I want the other one.
- 3. 주어-동사 일치: 다음 중 어느 문장이 올바른 문장일까요?
 - (1) The way in which we communicate with others have changed dramatically.
 - (2) The way in which we communicate with others has changed dramatically.

위 퀴즈의 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 글을 읽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세이리뷰에 의뢰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교정되는 문법 오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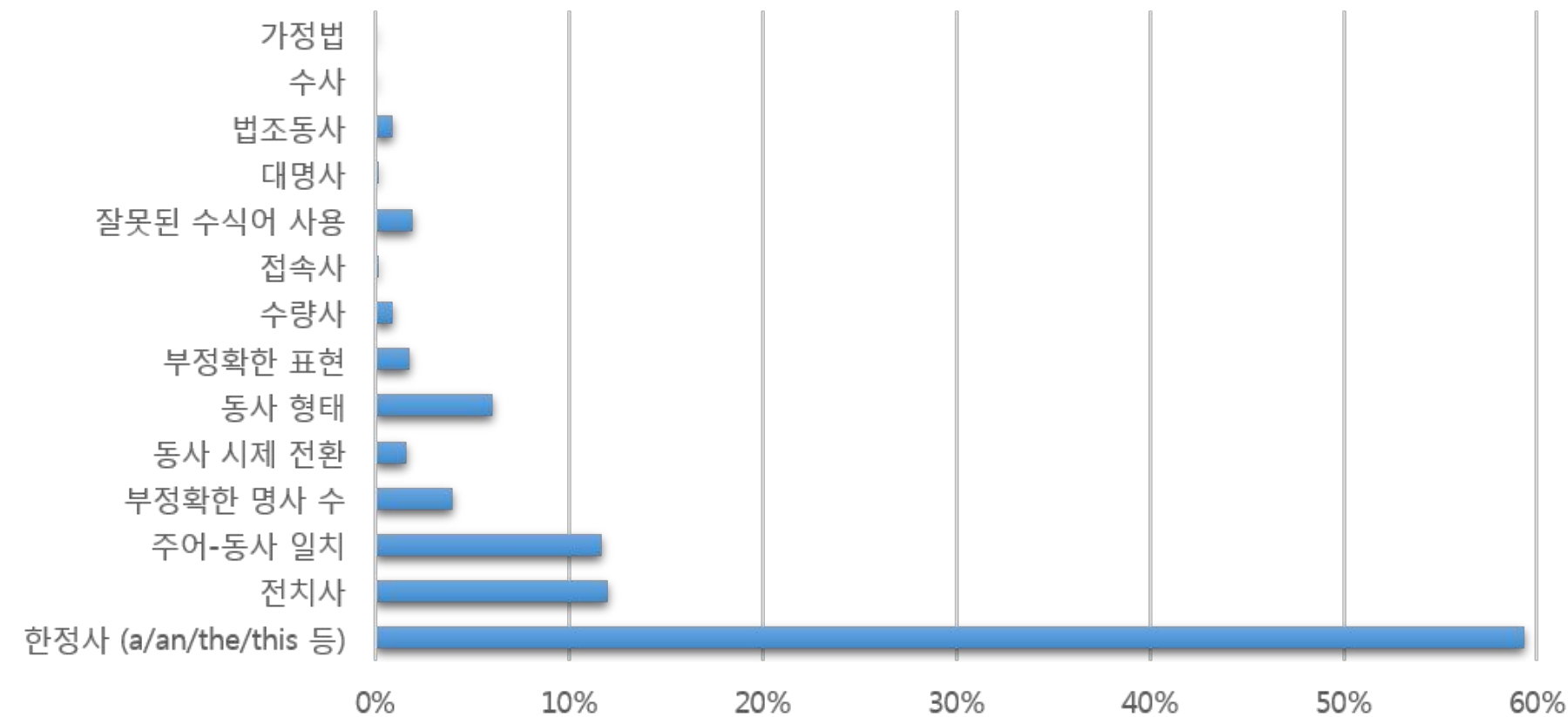
문법 오류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많이 틀리시는 5가지 문법 오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 **한정사:** 한정사란 명사나 명사구절 앞에 오는 단어로 해당 명사가 일반 명사인지 특정명사인지 알려주고 수량을 지정합니다. 한정사는 관사(a, an, the)와 this, that, every, each, which, 및that과 같은 단어가 포함됩니다. **가장 흔한 한정사 오류는 알맞지 않은 한정사의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 ◆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있는 단어로 같은 문장이나 절 내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전치사를 배우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이에 대한 규칙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을 경우 아래 에세이리뷰가 알려드리는 툴을 사용하여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 **주어-동사 일치:** 인칭과 수에 있어서 주어와 동사가 일치해야 된다는 개념(단수/복수)입니다. **보통 주어가 전치사구를 포함한 명사구일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 ◆ 예: The statue made of various kinds of bricks symbolizes birth and life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치사구를 포함한 명사구입니다].
- ◆ **동사 형태 혼동:** 6가지 동사 형태가 존재합니다: 동사 원형(사전 형태), 부정사(to+동사원형), 3인칭 단수 (동사+s), 현재 분사(동사+ing), 과거형 및 과거분사. 일부 동사는 몇몇의 형태만을 갖고 있는 반면, “be” 동사는 무려 8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 형태의 혼동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분사를 사용하고 현재 분사(동사+ing 형)를 남용할 때 발생합니다.**
- ◆ **동사 시제 전환:** 하나의 주제에 관한 문장이지만 **같은 절 내에 두 가지 이상의 시제를 사용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규칙에 따르면 항상 한 가지 시제를 사용하거나 동사 시제 변환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절 또는 문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 ◆ 예: ✗ I really like this movie, which was why I bought it [이 문장에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혼용 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 ✓ I really like this movie, which is why I bought it.

아래는 에세이리뷰의 빅데이터 통계에 따른 학술 논문 문법 오류의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흔한 문법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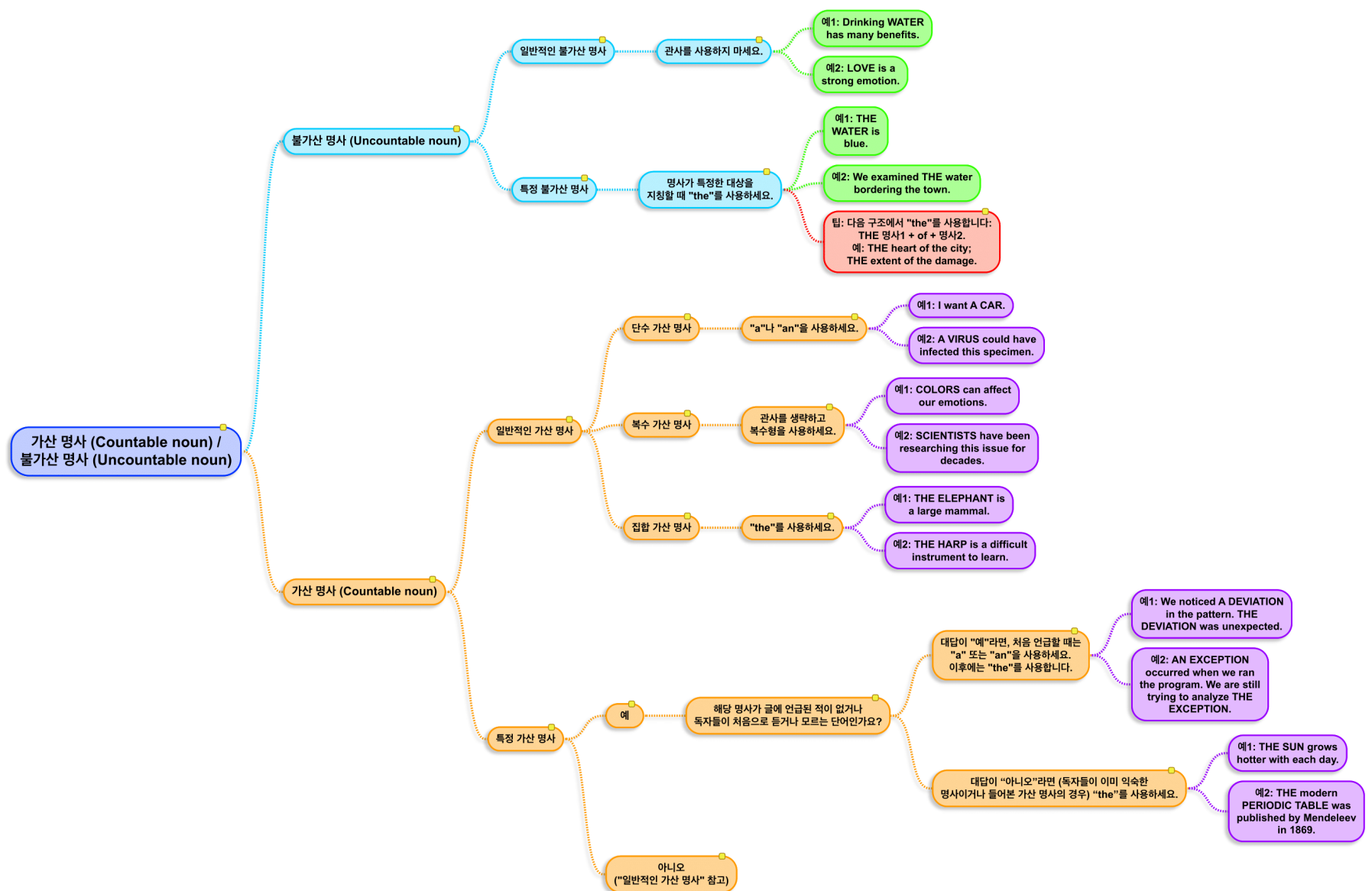


위의 막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정사 관련 오류는 에세이리뷰에서 교정된 문법 오류 중 약 60%를 차지합니다!** 특히, 해당 오류 중 대다수는 관사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사 사용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 오류인 이유는?

“a,” “an,” 및 “the”와 같은 관사는 사소해 보이지만, 명사의 특정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쓰거나 말할 때 사용하는 관사나 한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사 사용의 또 다른 이유는 명사가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사 사용 규칙에는 많은 예외가 있지만, 영어 관사 사용 규칙은 주로 명사의 가산과 관련 있습니다. 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준비한 블로그 글과 아래 차트를 확인하세요 [글 전체를 보시길 원하신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올바른 관사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관사는 특정성을 나타내며 명사에 대한 문맥을 보여줍니다. 1~3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치고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관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영어로 대화 중에 자동차를 갖고 싶다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두 문장 중 하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I really want a car" 또는 "I really want the car." 차 하나(아무 차)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차 (이미 보았거나 들어봤던 특정 차)를 원하시나요? 아마도 후자의 차를 원하실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I really want the car." 그러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드림카를 모른다면 어떨까요? "해당 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차를 원하는지에 대해 그 사람을 헷갈리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 really want a car"라고 말하면, 청취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차에 대해 이야기 하는지 여전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a car"로 시작한 후 이후 문장에서 "the car"를 사용하여 이 차를 설명하세요 (2) 자신이 원하는 차를 정확히 구별 짓는 한정적 관계사절(restrictive clause)과 함께 "the car"를 사용하세요.

예:

- (1) I really want a car. In fact, I want one exactly like the car I saw parked in front of Joe's house yesterday.
- (2) I really want the car I saw parked in front of Joe's house yesterday.

흔한 문법 오류 수정법은?

1. 잘못된 한정사 사용

◆ 관사

어떤 관사를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산 혹은 불가산 명사인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첨부된 차트와 [글](#)에 적힌 규칙을 따르세요. 간단히 말해서:

- ◆ **명사 + 특정 명사를 정확히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사 앞에 “the”를 사용하세요.
- ◆ **특정 명사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a” 또는 “an”을 사용하고 이어진 문장에서는 “the”를 사용하세요.
- ◆ 해당 명사의 “임의의 대상”을 의미한다면, “a” 또는 “an”을 사용하세요.
- ◆ 해당 명사 집단의 “모든” 멤버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each one과 every one) 가산 명사의 경우, 복수 + 관사 없음의 문장 구조를 사용하세요. 불가산 명사의 경우, 단수+ 관사 없음의 구조를 가용하세요.
- ◆ 한 범주를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경우 (해당 범주에 속한 각 구성원이 아니라면), “the”를 사용하세요.

◆ 가산 명사

- ◆ ✗ The apple is delicious. → ✓ Apples are delicious.
- ◆ ✗ I read the new book. The book was fascinating. → ✓ I read a new book. The book was fascinating.

◆ 불가산 명사

- ◆ ✗ The water is healthy for you. → ✓ Water is healthy for you.
- ◆ ✗ I bought the water yesterday, and now I will put the water in the fridge. → ✓ I bought water yesterday, and now I will put the water in the fridge.

◆ 지시사 (This/That/These/Those)

지시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시작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문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시사 이후에 해당 명사를 추가하세요.

◆ 규칙

- ◆ this + 단수 명사 (근처에 있거나 최근에 언급된 대상)
- ◆ that + 단수 명사 (“저쪽에” 있는 대상)
- ◆ these + 복수 명사
- ◆ those + 복수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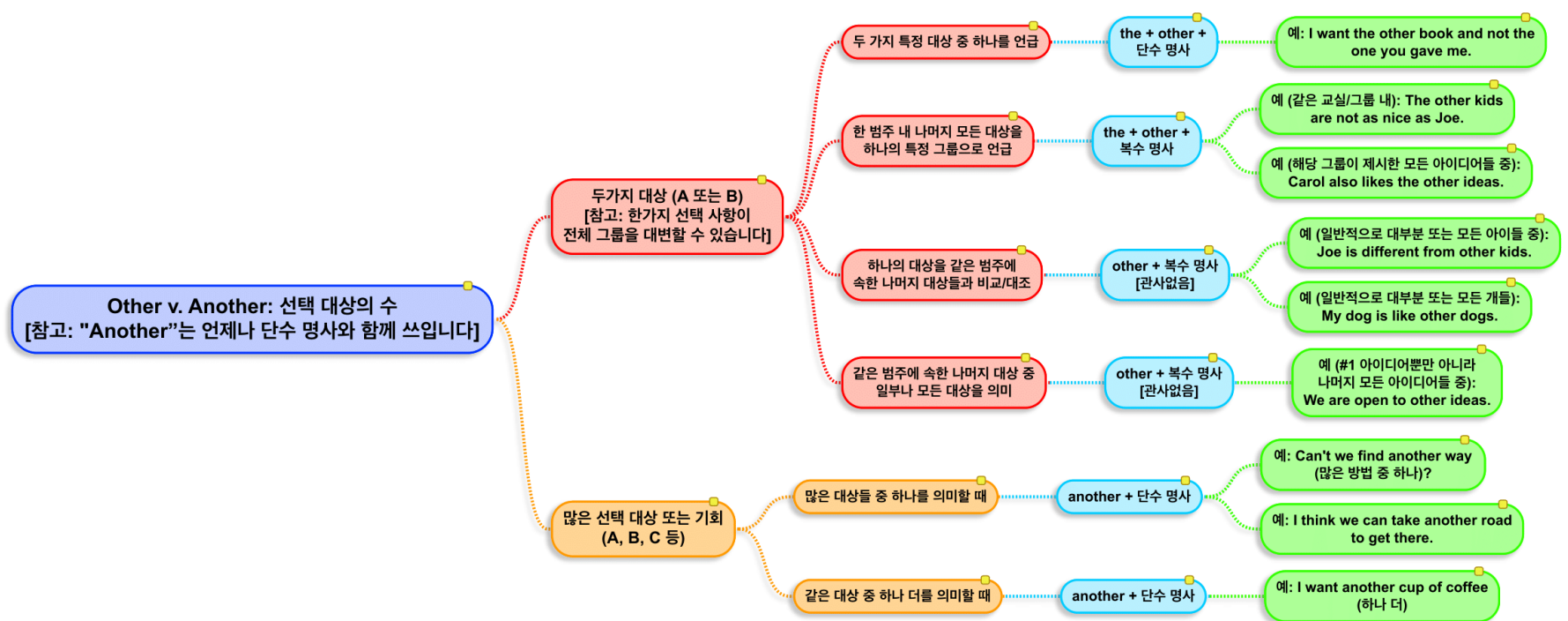
◆ 예제들

- ◆ ✗ This is good for you. → ✓ This exercise is good for you.
- ◆ ✗ We should adopt a new policy. That policy would help us streamline operations. → ✓ We should adopt a new policy. This policy would help us streamline operations.
- ◆ ✗ That would make her happy. → ✓ That promotion would make her happy.
- ◆ ✗ Cats are feisty. Those animals are very independent. → ✓ Cats are feisty. These animals are very independent.
- ◆ ✗ What do you want to do with these boxes over there? → ✓ What do you want to do with those boxes over there?

◆ Other vs. Another

단어 “other”와 “another”는 같은 대상 혹은 다른 대상의 대체물을 언급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본질적으로, “other”와 “another”의 차이는 선택 대상 혹은 기회의 개수에 달려 있습니다.

- ◆ ✗ I have two books left. Take this one. Thanks, but I want **the another**. → ✓ I have two books left. Take this one. Thanks, but I want **the other**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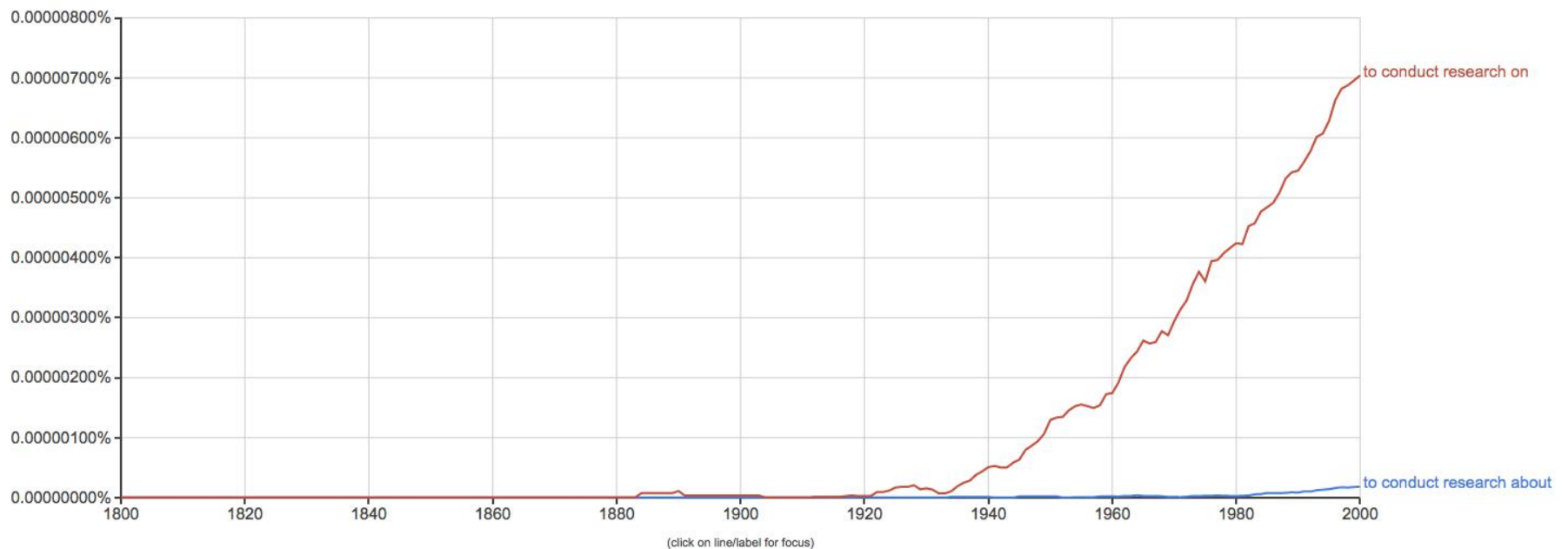


2. 잘못된 전치사 사용

- ◆ 영어에서 전치사는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좋은 소식은 wordiness(장황함)을 줄이려는 경우 동사와 전치사구를 강동사(strong verb)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구축 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Tip이 있습니다:
 - ◆ **숙어 표현에 포함된 전치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치사는 전치사의 일반적인 사용 패턴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지 않을 경우 [Merriam-Webster](#)와 같은 사전을 다시 확인하세요.
 - ◆ **두 전치사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말할 때 종종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영작에서 이 나쁜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 had to **get off of** the train.” → “I **got off** the train.”
- ◆ Google Book의 [N-gram Viewer](#)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gram Viewer는 18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발행된 책의 텍스트를 스캔한 다음 해당 구문이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를 표시합니다. 어느 전치사를 사용할지 고민하는 중이라면, 원하는 여러 구절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enter”를 누르세요. 구문의 빈도가 그래프로 그려지며, (옛날에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이상) 이 중 2000년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샘플 검색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to conduct research on”라는 구절이 올바른 동사=전치사 조합입니다.

Graph these comma-separated phrases: ☐ case-insensitive

between and from the corpus with smoothing of [Search lots of books](#)



3. 주어-동사 일치

- ◆ 동사가 주어와 수에 있어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주어-동사 일치와 관련된 가장 흔한 오류는 전치사구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전치사 앞에 위치한 명사가 동사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 **✓** 명사 1+ 전치사+ 명사 2+ 명사 1과 일치하는 동사
 - ◆ **✗** The **way** in which we communicate with others have changed dramatically. → **✓** The **way** in which we communicate with others has changed dramatically.

4. 동사 형태 혼동

- ◆ 동사 형태와 관련된 가장 흔한 두 가지 오류는 잘못된 분사를 사용하고 현재 분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 ◆ **잘못된 동사 분사**
 - ◆ 불규칙 동사에 유의하세요. 확실치 않은 경우 [Merriam-Webster](#)와 같은 사전을 사용하여 올바른 철자를 확인하세요.
 - ◆ 영국과 미국 영어에서 특정 동사 분사는 다른 철자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arned”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learned”와 “learnt” 모두 영국에서 사용됩니다.
- ◆ **현재 분사 남용**
 - ◆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실, 습관 및 어떤 대상의 상태 혹은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 ◆ **✗** The sun **is always rising** in the east. → **✓** The sun **always rises** in the east.
 - ◆ 현재 진행형 (동사+ing)는 **일시적인** 행동과 추후 행동에 대한 의향을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 현재 진행형은 다른 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 ◆ **✗** I **visit** my sister this week. → **✓** I **am visiting** my sister this week.

5. 동사 시제 전환

- ◆ 하나의 주제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같은 절의 동사는 같은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제를 혼용 하면 독자가 문장의 시제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 ◆ ✗ Joe **watched** the movie and **laughs** out loud. [Joe가 영화를 보았고 지금은 웃고 있다구요? 이 문장은 말이 안됩니다]
→ ✓ “Joe **watched** the movie and **laughed** out loud,” [Joe는 영화를 보고 웃었습니다. 훨씬 논리적이죠?] 혹은 “Joe **is watching** the movie and **is laughing** out loud” [Joe는 현재 영화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 ◆ 특정 주제에 관해 언급할 때 연속된 절 또는 문장에서 사용된 시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 ✗ Joe **eats** chocolate whenever he **got** upset. → ✓ “Joe **eats** chocolate whenever he **gets** upset,” [Joe는 현재 이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Joe **ate** chocolate whenever he **got** upset” [Joe는 더 이상 이 습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 물론, 행동의 진행 과정을 보여줄 때에는 시제를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I **am editing** the book that I **wrote**. [책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책이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세이리뷰가 정리하는 영작 필수 문법 기초를 통해 (1) 한정사 (2) 전치사 (3) 주어-동사 일치 (4) 동사 형태 (5) 동사 시제 전환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배운 모든 규칙을 영작을 할 때 마다 떠올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히 규칙을 이해하고 샘플 문장을 외우는 것이 실제로 새로운 문장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문헌

1. Zwaaf, Elizabeth. "8 Reasons I Accepted Your Article" Elsevier Connect. January 15, 2013.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s://www.elsevier.com/connect/8-reasons-i-accepted-your-article>.
2. Zwaaf, Elizabeth. "Eight Reasons I Rejected Your Article." Elsevier Connect. September 12, 2012.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s://www.elsevier.com/connect/8-reasons-i-rejected-your-article>.
3. Ware, Mark, and Michael Mabe. The STM Report: An Overview of Scientific and Scholarly Journals Publishing. Oxford: STM, 2009.
4. Elsevier Journal Finder.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journalfinder.elsevier.com>.
5. Journal/Author Name Estimator (JANE).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jane.biosemantics.org>.
6. Springer Journal Suggester.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journalsuggester.springer.com>.
7. "ABOUT NATURE." Nature.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www.nature.com/nature/about/index.html>.
8. "Defining the Role of Authors and Contributors." ICMJE.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
9.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The COPE Report 1999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u7141/1999pdf13.pdf>.
10. Albert, T., and Wager, E. "How to handle authorship disputes: a guide for new researchers." The COPE Report 2003.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2003pdf12.pdf>.
11. CMS Collaboration et al. "First Measurement of Bose-Einstein Correlations in Proton-Proton Collisions at $\sqrt{s}=0.9$ and 2.36 TeV at the LHC." Physical Review Letters 105, 032001 (2010). doi: 10.1103/PhysRevLett.105.032001.
12. Borja, Angel. "11 Steps to Structuring a Science Paper Editors Will Take Seriously." Elsevier Connect. June 24, 2014.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s://www.elsevier.com/connect/11-steps-to-structuring-a-science-paper-editors-will-take-seriously>.
13. Laso-Pérez, Rafael et al. "Thermophilic archaea activate butane via alkyl-coenzyme M formation." Nature, 539, 396-401 (2016). doi:10.1038/nature20152.
14. Angel Borja. "11 steps to structuring a science paper editors will take seriously" Elsevier Connect. June 15, 2013. Accessed December 9, 2016.
<https://www.elsevier.com/connect/11-steps-to-structuring-a-science-paper-editors-will-take-seriously>.
15. Lucas Laursen.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Cool Off, Revise, and Submit Again" Science. August 15, 2008. Accessed December 9, 2016.

“ 그간 에세이리뷰에서 공개하는 자료들은 참고하다가, 얼마 전 처음 교정을 이용했었는데 더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덕분에 Confirmed Candidature 취득과 더불어 위원회로부터 매우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측 교정자께서 도와주신 범위가 문법적인 사항 외에도 한국인 특유의 영작 습관 (예. redundancy/repetition) 을 바로 잡아주시며, 방법론 이슈까지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곳 Local Proofreaders에 앞서 더 찾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현 (PhD researcher,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The precise revisions and comments were very informative and helpful. Particularly, the reviewer pointed out article errors that many Koreans commonly make. Additionally, the revisions focused on natural sentence flow and editing to ensure appropriate word usage for the given context. ”

조용래 (연구원,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My editor not only corrected grammar errors, but also the content. They commented on sections that did not appear logical and edited to eliminate wordiness. They made my writing so clear and concise. It felt like my paper had been reviewed by a journal editor. ”

Fu Yu Yang (Doctoral candidate, National Central University)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에세이리뷰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essayreview.co.kr

한국 세일즈팀

이메일: edit@essayreview.co.kr 전화번호: 070-4086-5528

www.facebook.com/Essayreview blog.naver.com/Essayreview

